

통일을 말하다

먼저 온 통일

희망을 꿈꾸다

소식을 전하다

즐거움을 만나다

공감을 나누다



민주평통, 탈북대학생을 통일한국의 핵심리더로 키운다!

민주평화통일자문재단은 7월 7일 탈북대학생의 학업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해 50명의 탈북대학생을 '민주평화통일자문재단 장학생'으로 선발해 각 300만 원씩 총 1억5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재단 이사장인 현경대...



제 16기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통일준비
노력과 역할



탈북청소년 의료봉사
활동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하나의 국가,
ON 캠페인으로
통일의 스위치 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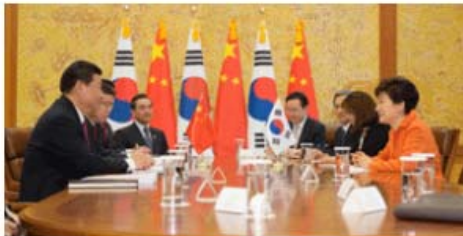


“통일도 꼭 필요하고
안보도 중요하단 걸
알게 됐어요”

통일을 말하다

포커스①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중국의 지지



시진핑 국가주석이 7월 3일과 4일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서술한다. 첫째,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기에 앞서 ...

+ 더보기

먼저 온 통일

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민주평통, 탈북대학생을 통일한국의
핵심리더로 키운다!



민주평화통일자문재단은 7월 7일 탈북대학생의 학업 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해 50명의 탈북대학생을 '민주평화통일자문재단 장학생'으로 선발해 각 300만 원씩 총 1억5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

+ 더보기

희망을 꿈꾸다

또 다른 시선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은 섬이 아닌
대륙이 되는 거잖아요”



소식을 전하다

Nuac News

민주평통의 국내외 지역회의·협의회
활동소식을 소개합니다.



통일시대



웹진다운로드



지나호보기

웹툰

‘내가 생각하는 통일 대한민국’
꿈이 이루어졌다!



동영상

가수 이승철 “하나의 국가,
ON 캠페인으로 통일의 스위치 켜요”



인기 예능프로그램 '개그콘서트'의 한 코너인 '정여사'를 패러디한 학생들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객석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의미 없이 웃음만 낄발하는 것도 아니다. 사실 '정여사'와 ...

경북 구미시협의회는 6월 22일 낙동강 체육공원 족구장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자문위원의 '소통과 화합 한 마당 체육대회'를 열었다. ...



+ 더보기

+ 더보기

즐거움을 만나다



통일레시피
아삭한 콩나물과
상큼한 채소의 만남 '콩나물 김치'



콩나물을 주재료로 파, 홍고추, 마늘 등을 섞어 주고 고춧가루를 탄 소금물을 부어 만든 콩나물 김치는 할경도 지방에서 주로 담가 먹는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다. 빛깔이 곱고 맛이 담백해 사시사철 담가 ...

+ 더보기

공감을 나누다



'통일 준비됐나요' 당선작
통일 후 만난 부모처자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내가 될 것



통일이란 말만 들어도 저는 가슴이 벅차고 설레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하루 한시도 잊은 적 없고 항상 보고 싶은, 사랑하는 부모처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통일이 되면 나는 부모처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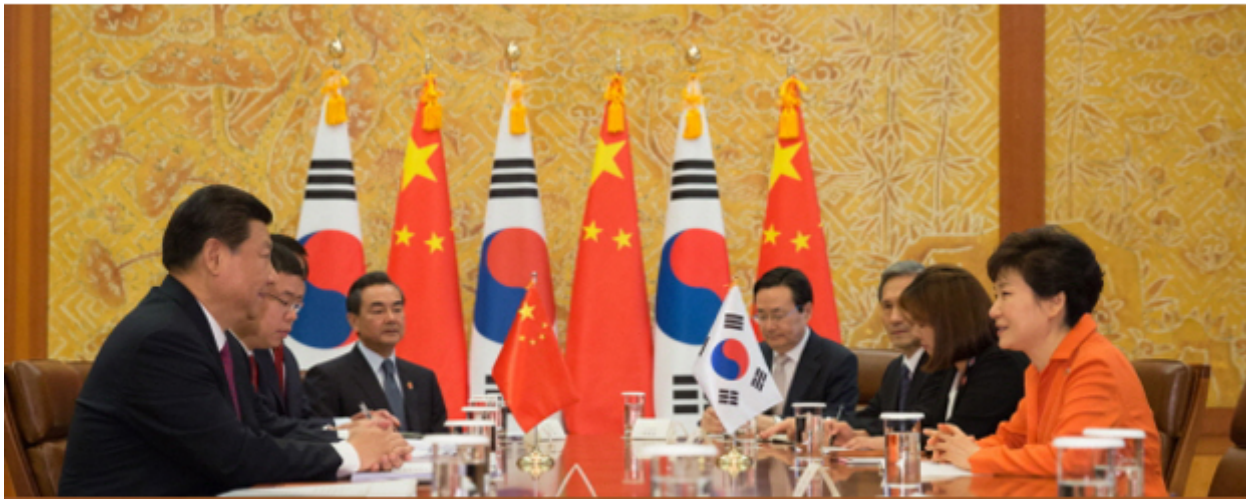
+ 더보기

이벤트



이벤트 당첨자 발표 >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중국의 지지

박 형 중 선임연구위원(통일연구원)

시진핑 국가주석이 7월 3일과 4일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서술한다. 첫째,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기에 앞서 먼저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둘째,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일련의 사항에서 진전된 공감대를 확인했다. 셋째, 한중간에 북한문제를 두고 공감과 협력이 증가하는 것은 북한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첫째,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북한 보다 먼저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한반도 정책 변화에서 하나의 상징적 사례를 보여준다. 중국과 북한은 아직도 여러 측면에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지만, 반면 상호 갈등하는 구조적 이익의 차원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정서적 동정과 공감이 점점 더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여전히 구조적으로 갈등하는 이익이 존재하지만, 두 나라 사이의 정서적 동정과 공감은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의 도발이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 그리고 군사적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었다. 특히 북한이 앞으로도 핵실험과 군사긴장 조성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이러한 경향이 심화될 것이고, 이것이 중국의 안보 이익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할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국은 북한에 대해 비핵화 궤도에의 복귀를 보다 명시적으로 요구하면서, 이것을 북중간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일차적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는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 상당히 긴장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거행하고 뒤이어 2013년 3~5월 사이 대대적으로 긴장을 조성한 것이 중국 자체의 안보 이익을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의 도발이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 그리고 군사적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었다. 특히 북한이 앞으로도 핵실험과 군사긴장 조성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이러한 경향이 심화될 것이고, 이것이 중국의 안보 이익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할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국은 북한에 대해

비핵화 궤도에의 복귀를 보다 명시적으로 요구하면서, 이것을 북-중간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일차적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2012년 4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한 이후에도 2년이 넘도록 중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 때문이다.

북-중관계는 2014년 들어 좀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2014년 3월 4차 핵실험을 강행하겠다고 했을 때, 중국은 이면에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했을 것이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무역 통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전혀 석유를 수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중국이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물량을 축소했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7월 초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앞서 한국을 먼저 방문했다. 이에 대해 북한의 공식 매체도 중국을 명시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중국을 비난하는 내용을 게재하고 있으며, 북한 군대 관련 시설에도 중국을 적대시하는 구호들이 등장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둘째,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중국 간에 대북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리의 입장에서 성과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중국측이 북한 비핵화 추진에 대한 강화된 의지를 천명한 것, 중국측이 한국의 대북정책 즉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선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해 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먼저 북한 핵문제를 보자.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개발에 확고히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기서 '한반도에서의 핵개발'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현실의 정황상 '북한의 핵개발'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공동이익이라는 것을 천명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월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남북한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구상이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에 대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했다.’”

다음으로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선언에 대한 중국측의 ‘적극적 평가’를 보자.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남북한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구상이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적극적이라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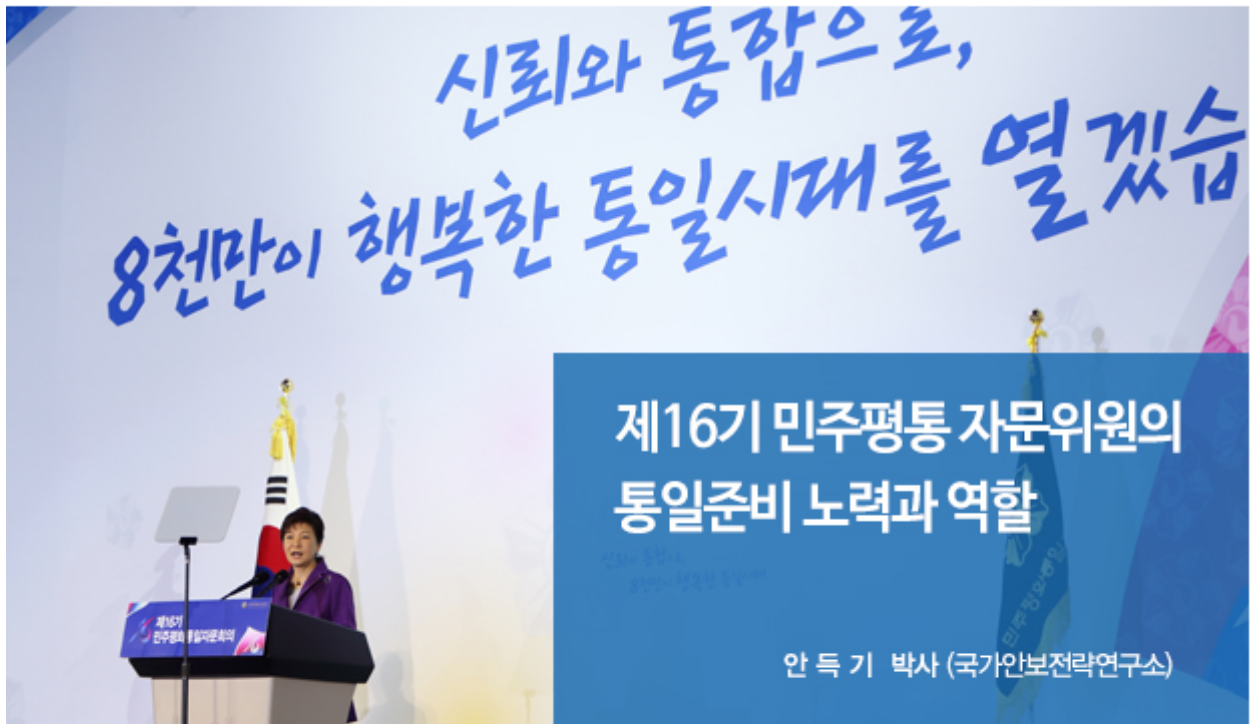


▲ 박근혜 대통령이 7월 3일 오후 청와대 세종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확대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번 회담에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한·중간에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북·중간의 전략적 소통이 부진하며, 이것이 북·중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는 것과 대비된다. 한·중간 전략적 소통으로 언급된 것으로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의 정례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대화를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셋째, 이번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이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지고 양국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북한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정권이 대내외적으로 생존 조건을 마련하는 데서 중국의 협조와 지지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중 관계는 앞으로 갈등이 존재하면서도 협력의 강도와 밀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북·중 관계에는 점차 구조적 갈등의 측면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 궤도에 참가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될 것인데, 이는 중국도 북한도 쉽게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이는 당분간 북·중 갈등 심화, 한·중 접근 증가라는 상황이 지속할 것을 보여준다.

<사진제공 : 청와대>



작년 이맘 때, 태양이 대지를 뜨겁게 달궜던 여름날, 신뢰와 통합으로 8천만이 행복한 통일시대를 만들어 나가자는 각오와 결의 속에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마음 한가득 통일의 열망을 안고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결의를 굳게 다지며 출범한 지도 1년이 지났다. 돌이켜보면 시간이 무척이나 빠름을 실감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통일의 원대한 미래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면 매우 소중한 시간이 아닐 수 없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민족의 영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범국민적 통일기구로 출범한지도 어느 덧 3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세 번이나 변하고도 남을 지난 세월 속에는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수많은 자문위원들과 사무처의 값진 봉사와 희생, 땀과 노력, 눈물이 녹아있다.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제1기에서 16기에 이르기까지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은 대통령의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건의 기능을 적극 수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운동의 중심체'로서의 기반과 역할을 갖추고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 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그 어떤 기구와도 다른 점은 바로 2만여 명의 자문위원이 지역과 계층, 정파와 세대를 초월하여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사회화를 담당하고 기능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극적 주체로서의 중간기구들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그 어떤 기구와도 다른 점은 바로 2만여 명의 자문위원이 지역과 계층, 정파와 세대를 초월하여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사회화를 담당하고 기능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중간기구들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이미 민주평통은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조직과 기능으로 지속적인 계발과 실행을 통해 통일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국민의 인식의 지도(Cognitive map)를 형성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적극적 매개체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국가가 유지되는 것은 국가에 대하여 요구하고, 지지하고, 국가정책 산출의 대상이 되는 국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통일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인식과 행동유형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이것은 교육, 계몽, 홍보 등 소위 사회화(Socialization)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민주평통의 역할과 기능의 측면에서 평화통일의 가치를 국민 속으로 확산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

제16기에 접어들어 전국 방방곡곡과 세계 각 지역에서 통일의 메아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지고 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국민 대통합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활동목표로 자문, 건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고 대국민 통일공감대확산에 주력하는 등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각 지역협의회의 정성과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배가되고 있다. 전국의 수많은 지역협의회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필자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평화통일의 가치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자문위원들의 땀과 노력을 목격할 수 있었다. 때로는 대한민국 통일외교관으로서, 통일전도사로서 지역환경에 걸 맞는 각종 국민공감형 통일사업 등을 발굴하고 통일운동을 통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통일외지를 확산해 나가고자 하는 자문위원들의 정성과 의지는 그 무엇에도 비할 바가 아니다.



현경대 수석부의장의 언급처럼 '통일을 향한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민주평통의 역할'은 너무나 큰 것이다. 이제 남은 1년은 단순히 임기로만 남은 1년이 아니라 16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노력과 땀을 통해 알찬 결실을 다지는 시간이다. 독일통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진정한 평화와 통일은 우리의 철저한 준비여부에 달려있다. 여기에는 노력과 희생, 그리고 능력과 의지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다. 이러한 교훈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입각한 통일 달성'이라는 우리의 신념 실현될 때까지 가슴속에 품고 있어야 할 내용이다. 1기에서 15기까지 선임 자문위원들의 노력과 결실을 바탕으로 이제 또 한 번 국민의 마음을 모아 행복한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때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역할에 따라 우리의 통일미래는 달라진다.
통일은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해 새로운 집 한 채를 짓는 일과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 하나 준비가 필요하다. 남북 당사자간 준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지지하고 인정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지지하고 함께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바로 이점에서 제16기 자문위원들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중요하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역할에 따라 우리의 통일미래는 달라진다. 통일은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해 새로운 집 한 채를 짓는 일과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 하나 준비가 필요하다. 남북 당사자간 준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지지하고 인정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지지하고 함께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바로 이점에서 제16기 자문위원들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중요하다.

이제, 서로의 굳은 각오와 의지로 출범했던 그 시간의 열정과 다짐이 다시 한 번 필요할 때다. “우리의 어제와 오늘은 우리가 쌓아올린 벽들과 같다”고 한 롱펠로우(Henry Wadsworth Longfellow)의 말처럼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쌓아올리는 벽들과 같다. 지금 이 순간부터 또 다시 다가올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용기를 내어 하나씩 하나씩 통일의 벽들을 쌓아 미래를 준비해가야 한다.

미래는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선택이며, 바로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민주평통과 통일시너지 효과 높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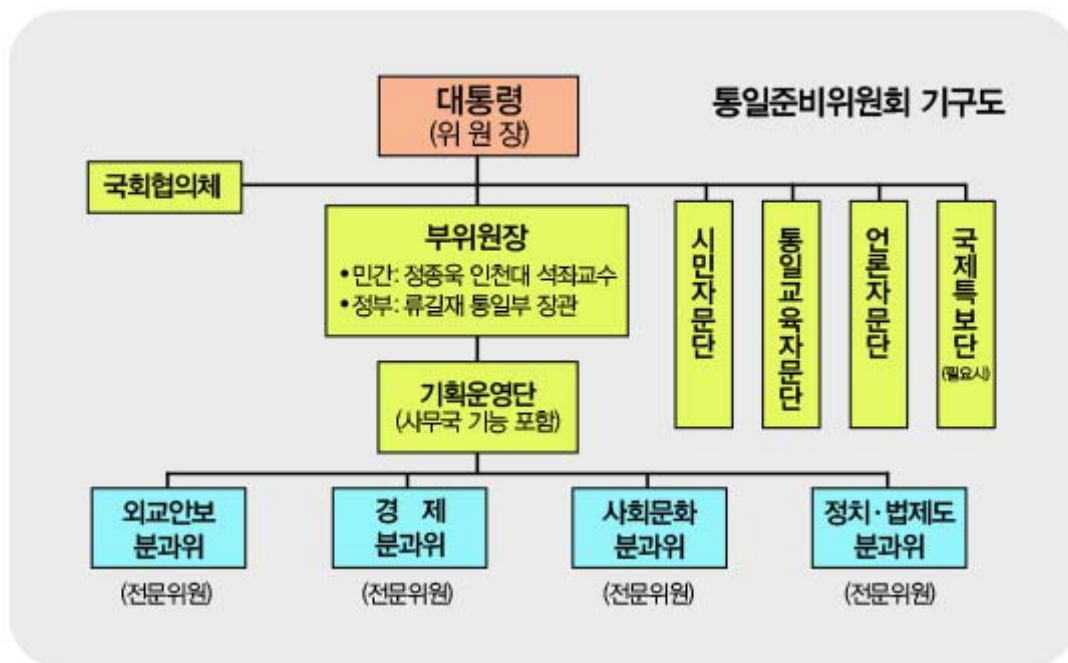
지난 7월 15일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청와대는 정부·민간 측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 민간위원 30명과 정부위원 20명으로 구성된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함께 협력하여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통일 추진의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에 전문가, 시민단체, 연구기관, 정부간 소통과 협업으로 통일 및 통합과정의 의제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는다.

통일준비위원회 인원구성을 보면, 위원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를 총괄하고 류길재 통일부 장관, 정종욱 인천대 석좌교수 등 정부 측과 민간인 측에서 1명씩 부위원장을 맡는다.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 등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2명이 당연직으로 참석했으며, 정부위원은 류길재 통일부장관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포함, 11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아울러 통일준비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민관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 등 6개 국책연구기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했다.



아울러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 학계, 관계, 경제계, 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갖춘 30명의 민간위원들을 선임했다. 특히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감안해, 여러 가지 배경과 철학을 갖춘 인사들을 참여시켰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정치법제도 등 분야에서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분야별 과제를 발굴하며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갈 계획이다. 이러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별로 '전문위원' 30여 명을 위촉해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시민자문단, 언론자문단, 통일교육자문단 등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시민자문단'은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 총 120여 개의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며, 통일준비위 내 자문단으로 대학 총장·교과 교장 50여 명이 참여하는 '통일교육자문단'과 18명의 언론인으로 구성된 언론자문단도 각각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통일준비위원회 1차 회의 개최는 8월초로 예정돼 있다. 1차 회의는 통일준비위원회가 발족하는 첫 회의인 만큼, 위원장과 위원들이 통일준비를 위한 과제와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로 출범한 통일준비위원회는 민관 협의 및 연구를 주요 역할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민주평통, 통일부와는 그 역할이 다르다. 통일부는 통일정책 주무부서로서 정부 정책의 수립·집행과 남북대화 등 고유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고, 민주평통은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국내외 2만여 명의 자문위원 조직을 통해 통일 문제에 관한 생생한 여론을 수렴할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자문 및 건의 등의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가게 된다. 따라서 이번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통일부, 민주평통 등 세 조직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시너지를 내는 한편, 이를 위해 조직 간 소통과 협업을 긴밀히 펼쳐나가게 될 것이다.

사진제공 : 청와대, 연합뉴스

‘통일 대한민국’ 꿈이 이루어졌다!

통일전인 2014년 민주평통에서는 국민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통일대한민국’에 대해 인터뷰했다. 그런데 10년 뒤 그 꿈이 현실이 되었다!



이택중

“치킨집 개업했는데
경기가 어려워요.”



10년 뒤



신의를 지켜주는 닭
프랜차이즈 20호점을
냈어요. 대박입니다!

전쟁의 위험 때문에
치안에...



10년 뒤



통일 후 전쟁걱정이 없어져
국민안전을 위한 치안에 훨씬
더 힘을 쏟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통일골든벨
하고싶어요



10년 뒤



제자들과 함께 평양에서 열리는
통일골든벨에 참가하러 왔어요!

생태학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연구결과가 합쳐져서 국제적인
가치를 갖는 성과가 나왔어요.

베일에 싸인
북한 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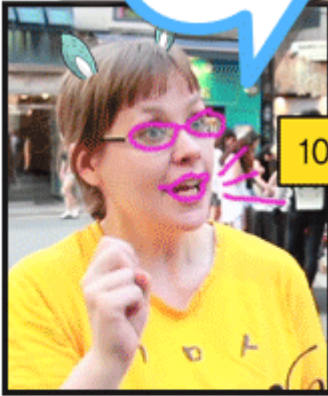
10년 뒤



노벨생물학상 수상

통일열차 타고 핀란드 헬싱키로
돌아가요. 핀란드 친구들과
다시 올게요~.

통일되면 세계로
번어가는 한국이...



10년 뒤

방송인 따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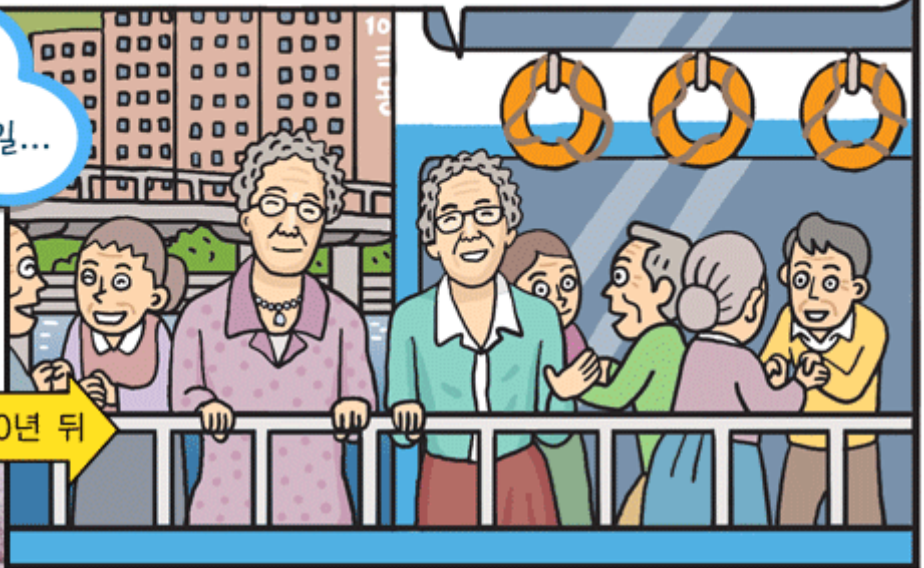


대동강에서 배도 타고 형제, 이웃들 얼굴 보며 왕래하고 사니까
너무 좋네요~.

실향민들의
마지막 소원은 통일...



10년 뒤



'e-행복한통일'에서 독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일 이후가 궁금하다', '통일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를 궁금해 하는 독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웹문을 통해 통일 이후의 한반도 상황을 가상현실로 보여드립니다. 단, 웹툰 내용은 상상일 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북한 동요, 유머의 옷을 입고 스며들다

글. 이지순 연구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포털 사이트에서 '북한 동요'로 검색하면 <대홍단 감자>, <뽀뽀송> 등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양중맛은 어린이가 귀여운 울동과 함께 선보이는 이 노래들은 한국의 네티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웹에서 공유되는 이 노래들은 북한 동요 그대로가 아니라 개그 스타일로 자막을 입힌 동영상들이다. 가장 인기 있는 <대홍단 감자>의 1절은 다음과 같다.

등글등글 왕감자 대홍단 감자
너무 커서 하나를 못 다 먹겠조
야하~ 감자 감자 왕감자 참말 참말 좋아요 못 다 먹겠조

개마고원 다음으로 넓은, 백두산 동쪽의 백무고원을 개간하여 건설된 곳이 대홍단 농장이다. 이곳에서 주로 생산하는 작물 중 하나가 감자이다. <대홍단 감자> 동영상을 본 남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개 '귀엽다' '재미있다' '웃기다' 등이다. 그 중 '웃기다'가 압도적인 편이다. 누군가가 달아놓은 자막은 가사를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닐 것이다. 자막은 북한 어린이의 과장된 표정과 우리와 다른 가창 방식, 북한 고유의 발성법으로 알아듣기 힘든 발음을 희화해 놓았다. 이는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공유를 부채질했고, 웃음 코드에 맞춰 감상하도록 하였다. 너무 커서 하나도 다 못 먹을 정도라는 왕감자는 '흰쌀처럼 맛있고', 동영상 속 어린이가 두 팔을 벌려 가능하듯이 '호박'만큼 크다. 춥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고 생육기간도 짧은 감자는 대표적인 구황작물이다. 이 노래는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 시기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 정책적으로 장려했던 감자 농사를 배경으로 한다.

한 사회의 노래에는 집단의 정서와 문화, 이데올로기가 녹아 있다. 비단 동요라고 해서 그 자장에서 비껴 있는 것은 아니다. 남한의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배우는 동요에도 그런 흔적들은 얼마든지 발견된다. "개굴개굴 개구리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목청 좋게 노래부르는 <개구리>(이동찬 작사, 흥남파 작곡)를 보면, 아들을 선호하던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모습이 들어 있다. 다만 북한의 동요는 애국의 정신과 민족의 넋이라는 이름 하에 좀 더 노골



적이고 정치색은 짙다. “장군님 사랑 속에 풍년 들었

죠”라고 노래하는 <대흥단 감자>의 가사는 북한 동요의 일반적인 스타일을 보여준다. 게다가 반미, 반제 주제를 지닌 전투적이며 공격적인 노래들도 많다. 남북한 분단이 불러온 많은 차이들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일 것이다. 정치와 이념의 차이뿐만 아니라 사고방식, 생활방식의 차이, 더 나아가 노래 가사의 차이까지.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사 자체만으로도 어여쁜 동요들도 여럿 발견할 수 있다. <대흥단 감자>만큼이나 인기 있는 북한의 동요는 우리에게 ‘뽀뽀송’으로 알려진 <우리 아빠 제일 좋아>이다.

“내가 고와 뽀뽀 우리 엄마 뽀뽀/ 우리 엄마 뽀뽀가 제일 좋아/ 우리 엄마 뽀뽀가 제일 좋아// 내가 고와 뽀뽀 우리 아빠 뽀뽀/ 우리 아빠 뽀뽀가 제일 좋아/ 우리 아빠 뽀뽀가 제일 좋아”라고 부르는 <우리 아빠 제일 좋아>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뽀뽀뽀>와 같이 신나고 사랑스럽다.



<우리 아빠 제일 좋아>는 탁아소나 유치원에서 배우고 널리 애창된다. 간주 중에 뽀뽀하는 시늉을 하다가 노래가 끝나면서 청중을 향해 손뽀뽀를 날리는 어린이는 귀엽고 깜찍하다. 듣다 보면 함께 흥이 나고 어린이의 어깨춤을 따라하게 된다. 남북한 체제 차이를 잊게 할 정도다. 이 노래가 남한 대중에게 인기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우리의 정서와 잘 맞는 노래는 또 있다. “저 건너집 김침지 두 량주가 아침을 먹을 때 김치 깎두기 맛 참 좋시다~ 김치 깎두기 맛 참 좋시다~ 김치 깎두기 맛 참 좋시다~ 만반진수 차려놓고 김치 깎두기 없으면 아주 맛 없네”라고 부르는 <김치 깎두기의 노래>이다. 이 노래는 유치원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이 즐겨 부른다고 한다. 원래 구전되던 민요풍의 이 노래는 1980년대 보천보전자악단의 가수 리경숙이 부르면서 널리 애창되었다. 이와 비슷한 노래가 남한에도 있다.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밥을 먹을까”로 시작하는 정광태의 <김치 주제가>가 그것이다. ‘김치’가 입맛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남북한은 역시 한 민족인 셈이다.



얼마 전 카툰으로 ‘한석봉과 어머니’ 유머 시리즈를 전달받았다. 공부하고 돌아왔다고 인사하는 한석봉에게 무관심한 어머니는 ‘언제 나갔었냐?’고 도리어 물어본다. 이 유머 시리즈는 ‘이제 너의 이름은 이석봉이다’라고 말하는 바람둥이 어머니에서부터 불을 끄고 떡을 썰면 손 벨까 겁을 내는 어머니, ‘난 떡을 썰 테니 너는 물을 길어라’라고 말하는 배고픈 어머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한석봉 어머니는 신사임당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성역처럼 존재하는 어머니 아이콘이다. 이 유머는 1990년대 말 IMF 때 아버지 권위를 무너뜨린 최불암 시리즈와 유사하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권위와 모성 신화를 해체하기 때문이다. 금기의 해체는 파괴가 아니다. 완고한 시각에서 벗어나 유연한 접근이 가능해졌다는 말과 같은 셈이다.

북한 동요의 회화화된 자막은 우리에게 '웃음'과 함께 자발적으로 공유하도록 했지만, 한편으론 너무 우스개로 만든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웃음의 웃을 입은 북한 동요는 그동안 민족의 동질성만 강조해 온 남북한 관계를 다른 시각에서 보도록 한다. 그것은 차이에 대한 긍정이다. 동질성의 강조가 오히려 서로의 차이를 외면하는 역할을 해 왔다면, 차이의 인정은 관용의 힘이 있다. 웃음 코드는 그동안 쌓아온 다름을 서로가 관용적으로 인정하고, 금기로 여겼던 상대방의 이질적인 문화를 유희하도록 한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걸맞게 오늘날 대중은 북한 문화의 한 요소를 끌고 들어와 즐거운 놀이로서 향유한다. 놀이하게 하는 것은 웃음이다. 가볍고 경쾌하게. 무거운 진지함을 벗어던진 대중은 거시적인 남북한 관계에 있어 미약한 단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손가락 한 마디 만큼의 틈이 거대한 독을 무너뜨리듯이, 대중의 유머 코드 속 북한 동요도 그러한 틈과 균열을 만들 것이라 생각한다. 남북한이 유쾌한 웃음으로 서로를 긍정할 수 있다면! 서로에게 이 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리라.

〈사진제공 : 연합뉴스〉



민주평통, 탈북대학생을 통일한국의 핵심리더로 키운다! 제1회 민주평화통일지원재단 탈북학생 장학금 수여식 개최

민주평화통일지원재단은 7월 7일 탈북대학생의 학업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해 50명의 탈북대학생을 '민주평화통일장학생'으로 선발해 각 300만 원씩 총 1억5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재단 이사장인 현경대 수석부외장과 이사인 강석희 CJ E&M대표, 시호비전 그룹 김태욱 회장, 지도교수인 강용찬 목원대 전부총장, 이하규 카톨릭대 부총장, 오세인 원광대 교수, 김창남 경희대 교수, 한석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조기정 수원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선발된 '제 1회 민주평화통일장학생'은 대학원생 9명, 대학생 34명 전문대학생 7명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38명, 수도권 11명, 지방 11명이다. 민주평통재단은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도교수단들은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상담은 물론 졸업 후 사회진출에 대해 상담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탈북학생들의 성공, 꿈의 실현이 바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이 장학금은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착해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착한 이웃들의 마음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먼저 남한에 온 북한이탈학생들의 꿈이 실현되도록 민주평통이 전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러분의 성공과 꿈의 실현이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경대 수석부의장



강석희 CJ E&M 대표



강용찬 목원대 전 부총장

강석희 이사는 축사를 통해 “이 장학금은 자유민주주의에 적응하려는 학생들의 의지와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나아가 통일대한민국을 준비하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장기적 안목에서 수여되는 것”이라며 향후 한반도 통일시대의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재단지도교수 6명을 대표해 강용찬 지도교수(목원대학교 전 총장)가 축사를 했다. 강 교수는 “50명의 장학생들은 한민족이 그리는 평화체제구축을 위해 선봉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한 후 “지도교수들이 장학생들의 형님, 오빠, 부모가 되어 대한민국에서의 작은 통일을 먼저 이뤄가겠다”고 약속했다.

장학증서는 현경대 수석부의장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전달했다. 현 수석부의장은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거나 손을 꼭 잡아주며 꿈을 향해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탈북 장학생 3명의 소감발표 이어져

이어 탈북 장학생 3명의 소감발표가 있었다.

먼저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강원철 학생은 “식량난 때문에 탈북해 남한으로 왔지만 항상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이들에게 떳떳해지기 위해 공부도 공부지만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꾸준히 해 왔다”고 말했다. 강원철 학생은 현재 ‘위드유’라는 단체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으며, 탈북청년합창단을 이끌고 광복절날 독도에 가서 공연을 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끝으로 “장학금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열심히 통일을 위해 정진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동국대학교 법학과에 재학중인 지성호 학생은 북한 탄광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장애인의 몸으로 힘겹게 한국에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열심히 사는 것이 바로 자신이 할 일 이라고 생각했지만, 룸메이트였던 로버트 박이 자유를 외치며 북한으로 간 것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에 NAHU 라는 청년단체를 조직한 뒤 기금을 모아 중국 라오스 등지에 떠도는 탈북청소년 구출하고 있으며 자유아시아방송 등을 통해 남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통일의 역군이 되라고 장학금을 주셨는데,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엄현숙 학생은 북한에서 대학교수생활을 7년간 한 엘리트다. 2005년 탈북했으며 현재 북한대학원대학에 재학중이다. 북한에서 대학을 나오고 남한에 와서 대학원을 다닐 수 있게 된 것에 기뻐지만 박사과정에 들어가면서부터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고 한다. 엄현숙 학생은 남북한 교육체계를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교육전문가로서, 대한민국에서의 통일교육 및 통합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통재단 장학생들의 숨은 이야기

1회 민주평통재단 장학생 50명은 모두들 가슴 아픈 사연들을 한가득 안고 살지만, 누구보다 크고 강한 용기로 꿈을 향해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대림전문대 호텔조리학과에 다니는 정** 학생은 2002년 북송돼 아버지를 잃은 아픔을 딛고 2003년에 한국에 왔다.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봉어빵을 구워 팔 정도로 형편이 넉넉치 않았지만 열심히 요리사의 꿈을 키워나간 결과, 한국국제요리경연대회 동상, 북한전통음식 전문가 양성과정 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의 최종 목표는 통일 후 평양호텔의 총 주방장이 되는 것이라고.





다음은 연세대 신학과 최** 학생의 이야기. 두 차례 복송으로 인해 어머니는 척추골절 장애를 갖게 됐고 동생은 북한에서 한쪽 눈이 실명됐다. 그래서 그녀는 대학 4년 동안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왔다. 열심히 공부한 결과 성적도 향상되었고, 남북대학생 글로벌 평화통일 프리젠테이션 대회 3등, 대학생 중국어 토론대회에서 1등을 하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과 더불어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송**학생은 북한에서 온 과학기술인재이다. 북한의 유명 대학교, 대학원에 다녔지만 낙후한 기술, '담장 없는 감옥' 과도 같은 북한을 탈출해 한양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한 후 석박사 통합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대학 졸업때 삼성전자 등 대기업 2곳에 합격했지만, 대학원에서 연구를 계속하며 저명한 국제과학저널에 게재할 논문을 준비중이다. 앞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선진국인 독일에서 박사후연구과정으로 선진기술을 연구하고 싶다고 한다.



탈북청소년 의료봉사 활동이 업그레이드됐어요! 민주평통 의료봉사단 민주평통 무료진료 현장 소개

지난 7월 23일 수요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우리들학교 강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료봉사단원 10여명이 탈북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두 번째 무료진료활동을 펼쳤다. 민주평통 의료봉사단은 이날 내과와 정형외과, 신경외과, 한방과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료와 검진을 실시했으며, 안과 검진 후 안경을 지원하고 구급약 키트 및 치료용품 등을 전달했다.

탈북학생 영양보충을 위한 비타민 업그레이드!

“가슴이 좀 답답해요.”

“그래? 엑스레이도 촬영했고, 지금 진찰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 비타민 받고 공부 열심히 해.” 의료봉사단의 이번 진료활동은 지난 6월 두리하나국제학교에서 펼쳤던 활동보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됐다. 한 차례 경험을 통해 탈북학생에게 필요한 진료활동과 의약품 등을 보완했기 때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타민이다. 봉사에 참가한 간호사(에이치플러스 양지종합병원, 이사장 김철수)는 “봉사단장님께서 지난번에 봉사했을 때 영양이 부족한 것 같다고 하셔서 비타민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 탈북청년 영양보충을 위해 새로 추가된 영양제



김철수 단장은 이번에도 의료진료에 앞서 미리 학생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데려가 엑스레이 촬영 등 기초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김 단장은 “치료받을 학생들도 몇 명 있지만 심각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아직까지는 밝고 영양상태도 좋은 것 같지만, 필요하다면 계속 치료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낮게 해 줄 수 있어요? 전 마음이 아파요”

한방과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한 학생에게 아픈 곳이 있냐고 물었더니 ‘마음’이 아프다며 낮게 해줄 수 있냐고 되물었다. 성미옥 교감은 “북한에서 온 친구들은 깜짝 놀랄 정도로 속병이 많은 애들”이라며 “심지어는 자기가 아픈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성 교감은 “이번 진료를 통해 아픈 곳을 치료할 수도 있겠지만 건강 관리 방법을 배우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혼자서 왔다고? 어디로 해서 온 거야?”

“백두산이 이렇게 있고요. 쪽 가다 압록강을 지나 다시 쪽 가다가 두만강 쪽으로 왔어요.”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진료를 기다리는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운동주 교장에게 학생들의 진료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었다. 운동주 교장은 “학생들이 북한의 가족부양과 생계비 마련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으며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많아 이에 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나이가 많거나 삼국에서 출생했거나 학습시기를 놓쳐버린 아이들이 많이 소외돼 왔는데 이렇게 정기검진을 받게 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음 진료맨 ‘탈북청소년 맞춤형’ 약제 가져올 것”





시호비전그룹에 이어 2차 무료진료에는 이성일 자문위원(성일안경원 대표)이 안과검진과 안경제작을 맡았다. “학생들의 시력이 비교적 좋고, 일곱 명의 학생에게 안경을 새로 맞춰줬다”는 이성일 자문위원은 “탈북 청소년들의 모습이 아직한 경직돼 보이는데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잘 살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방적으로 보면 열이 많은 체질이에요. 설사 같은 거 잘하지 않아요? 밀가루 음식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한방과 진료에는 윤영진 자문위원(경희공의봄 한의원장)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키가 더 클 순 없는지 묻기도 했고, 피로감과 두통 등을 호소했고 그때마다 윤 자문위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해결책을 알려주었다. 윤 자문위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려고 침 보다는 식습관 교정을 계속해줬다”며 “다음에는 북한이탈청소년에게 맞는 기본적인 약제를 맞춰서 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형외과 진료를 맡은 백성길 부단장(대한중소 병원협회 회장)과 임정희 실행위원(대한간호 조무사 협회 명예회장)은 진료 이외에 진료와 적성, 진학 등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나눴다. 백성길 부단장은 “탈북청소년들이 남한에 와도 교육수준과 연령 등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 부적응사례가 많다”며 “수준별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임정희 실행 위원은 “이들 대안 학교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지원체계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진료를 받은 아이들은 대부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숙소로 올라갔다.

“하나원에서 나온 지 한 달 됐는데 온몸이 다 아프고 배가 딱딱해서 여쭙봤더니 괜찮대요.”

그 중에는 간호사가 되겠다는 학생도 있었다. “2011년도에 한국에 왔는데 지금 대학입시를 준비 중이고 간호대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 의사선생님 만나보니깐 친절하시고 좋더라고요. 저도 간호사가 돼서 나중에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싶어요.”

이번 민주평통 의료봉사단 활동은 대한치과협회·대한한 의사협회(진료지원)와 한국제약협회(구급상자 및 의료구급약품), 시호비전그룹(안과 검진 및 안경)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민주평통 의료봉사단’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의료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희망과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하나의 국가,
ON(one nation) 캠페인으로
통일의 스위치 켜요”

가수 이승철 김정철 변호사의
통일 이야기

‘보컬의 산’으로 불리며 한국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뮤지션의 반열에 오른 가수 이승철.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수많은 언론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단숨에 포털 검색어 ‘1위’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승철 씨가 ‘한반도 통일’을 향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그의 이러한 활동은 젊은 세대에게 통일문제를 인식시키고 공감대 확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월 23일 이승철 씨의 ‘절친’이자 민주평통 서대문구협의회 청년위원장인 김정철 자문위원(변호사)이 서울 삼성동 이승철 씨의 루이스스튜디오를 찾아가 함께 나눈 통일이야기를 글로 재구성해 보았다.



“탈북합창단과 광복절에 독도에서 공연할 것”

김정철 : 먼저 ‘대가수’ 이승철 씨와 함께 통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요(웃음).

이승철 : 평소 선후배 사이로 친하게 지내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김정철 변호사가 민주평통 자문위원인 걸 알고 깜짝 놀랐네요.

김정철 : 이승철 씨가 최근 ‘통일송’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저는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이승철 씨의 이런 활동이 젊은 세대의 통일공감대를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통일송’은 어떻게 만들게 된 건가요?

이승철 : 탈북 기자인 윤일건 씨가 어느 날 찾아와 통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며 ‘with-U(이하 위드-유)’의 탈북청년합창단을 위한 통일노래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해왔어요. 또 합창단 지도를 맡아준다면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 독도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며 숙제를 내 주더군요.





김정철 : 흔쾌히 수락하셨나요?

이승철 :이 단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2년 전부터 많은 활동을 해왔더라고요. 이분들의 의지가 확고하고 마음이 순수한 것 같아, 곡을 만들게 됐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지요. 8월 14일 D-Day를 위해서요.

김정철 : '통일송'으로 불리는 '그날에'는 어떤 곡인가요?

이승철 :후배 작곡가들과 함께 작업을 했어요. 10여 명 정도의 작곡가에게 곡을 받았는데 그 중 네이브로의 정운보 씨가 만든 곡이 눈에 띄었어요. 굉장히 아름답고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곡이지요. 이 곡을 바탕으로 소치올림픽에서 저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로 음악을 발표했던 양방언 음악감독님이 스트링편곡을 해주셨고, 현재 국악 편곡과 오케스트라 클래식 편곡도 진행중입니다. 각계각층에서 많은 분들이 재능기부를 해주셔서 좋은 노래가 나왔고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남북한은 하나 One Nation, 통일의 스위치를 ON하자”

김정철 :‘그날에’라는 곡을 만든 것도 ‘ON캠페인’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 ‘ON캠페인’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이승철 :‘ON캠페인’의 ‘ON’은 ‘One Nation(하나의 국가)’의 약자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 통일에 대한 관심이라는 스위치를 켜자’, ‘남한과 북한은 원래 한 민족이었음을 상기시키는 스위치를 ON하자’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김정철 :통일이 되면 가장 혜택을 볼 사람들이 바로 젊은 세대들인데,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이 '자신은 통일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승철 씨의 노래를 통해 통일이 이슈화된다면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 이라고 생각해요.

이승철 :‘ON캠페인’은 앞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면서, ‘통일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8월 14일 탈북합창단과의 독도 공연을 마치고 나면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UN이나 세계 평화에 관심이 높은 하버드대학에서 공연도 가질 계획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작곡가나 뮤지션과의 작업을 통해 영어버전으로 듀엣곡을 부르고, 음반 발매 수익금 전체를 통일관련 기금으로 기부할 계획이고요. 뿐만 아니라 TV방송에서도 독도공연을 1부작 다큐멘터리로 방영하고 10월 24일 UN Day(유엔 데이)에 맞춰서 2부작 다큐멘터리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김정철 :민주평통에서는 ‘통일맞이 하나-다섯 운동’을 실시하면서 탈북청소년들과 1:1멘토링(어깨동무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좀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탈북합창단과 함께 하면서 만난 청년들은 어떤가요?

이승철 :어린나이에 큰 역경을 딛고 일어난 친구들이잖아요. 굉장히 해맑으면서도 통일에 대한 염원이 너무 강렬해요. 무엇보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고요. 이 친구들이 소망을 이루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 열심히 힘을 낼 계획입니다.



“통일은 음악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김정철 :평소 정치적인 영역과는 거리를 두신 걸로 아는데, 이승철 씨는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이승철 :뮤지션의 입장으로 이야기 한다면, 통일이 너무 기다려지지요. 현재 전국에서 30개 콘서트투어를 진행하는데 통일이 되면 남북한과 그 너머의 나라들까지 80개 투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웃음). 제 노래를 사랑해주는 분들이 많아지고, 음악을 함께 공유할 무대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김정철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서 말씀 드리자면, 현재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기대감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있지만, 통일을 부담스러워하는 일부 2030 젊은세대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노력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승철 씨의 'ON캠페인'과 같은 문화적 접근에 큰 기대를 거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온국민이 통일을 공감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소통장치를 많이 구비한다면 통일은 점점 더 가까워질 것 같아요. 끝으로 자문위원과 웹진 독자들을 위해 한 말씀 해주세요.

이승철 :민주평통에서는 국내외 2만여 명의 자문위원들이 통일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저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저마다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글. 기자희 / 사진. 나병필>

탈북청년모임 '위드-유' 8월 14일 독도에서 공연 개최

탈북청년모임 'with-U(위드-유)'는 광복절을 맞아 8월 14일 독도에서 '독도사랑·통일희망 독도콘서트'를 갖는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G&M 글로벌문화재단과 '뷰티플 마인드', 가수 이승철 및 명동성당 가톨릭합창단 이강민 지휘자 등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한다.

독도콘서트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북한 출신 청년들의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고 독도사랑운동에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통일의 상징적 징검다리인 독도에서 공연함으로써, 통일의 염원을 국민들과 전 세계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위드-유'는 지난 3월부터 탈북청년 독도원정대를 모집해 합창 연습을 하고 있으며, 바자회 등을 통해 독도 방문 경비를 스스로의 힘으로 마련했다.

한편 탈북청년 합창단은 독도콘서트에서 탈북청년과 정체성이 닮은 독도에 관한 노래 '홀로아리랑'과 가수 이승철 씨가 다른 음악가들과 함께 완성한 신곡 '그날에'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 위드-유 합창단의 탈북 후배 돕기 '마중물 음악회'(2013.11.01)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은 섬이 아닌 대륙이 되는 거잖아요”
볼간 타미르 (광운대학교 디지털미디어 학과)

“이거 왜 이래! 나도 독도 잘 알거든!!”
“내가 너로 독도 정역사야!”

인기 예능프로그램 '개그콘서트'의 한 코너인 '정역사'를 패러디한 학생들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객석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의미 없이 웃음만 남발하는 것도 아니다. 사실 '정역사'와 그의 딸 '소피'는 각각 몽골과 이란에서, 그들의 역지를 받아줘야 하는 여행사 직원은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다. 그리고 이들이 여장까지 마다하지 않고 무대에 오른 이유는 단 하나, '우리 땅, 독도'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2014 유학생 독도사랑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독도 지킴이'팀의 정역사, 볼간 타미르(26)씨를 만나 그의 한국 생활에 대해 들어봤다.



몽골에서 온 뱀띠 청년, 타미르예요

'제13회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제7회 전국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글짓기 대회'등 다수의 화려한 한국어 대회 수상경력이 대변하듯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자랑하는 타미르 씨. 서글서글한 외모로 자신을 대뜸 뱀띠라 소개하는 청년에게 한국어 실력을 칭찬하자, 엉뚱하게 K-pop 예찬론이 시작된다.

“우리 엄마는 무용수인데요. 어렸을 때 엄마가 오랫동안 한국에서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한국은 언제나 동경의 나라였어요. 더욱이 몽골은 한류가 굉장해서 채널만 돌리면 한국 드라마, 예능, 가요까지 다 나왔어요.

부모님 끼를 물려받아서 인지 그중에서도 K-pop에 꽂혔죠. 그런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추다 보니까 가사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넉넉지 않은 가정형편에 한국어 학원을 다닐 수도 없어 무작정 유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대학 앞에서 기다리다, 한국인처럼 보이는 학생이 지나가면 한국어 책이나 교재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부탁했다. 그렇게 얻은 책으로 독학한 한국어는 타미르 씨의 한국에 대한 동경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그리고 운명처럼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돼 처음 한국 땅을 밟게 됐다. 그게 2010년 초 봄의 이야기다.



동경의 나라에서 맛본 짜릿한 떡볶이의 추억



마냥 꿈만 같은 한국생활. 경험해 보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약속된 5년이란 시간(정부장학생은 어학연수 1년, 대학 정과과정 4년 간 지원받게 된다)이 짧게만 느껴졌다는 타미르 씨가 한국에서 처음 한 식사는 떡볶이었다고.

“배가 고픈 상태에서 뭘 먹을지 고민하는데 길거리 포장마차가 보이더라고요. 떡볶이는 한국 드라마나 방송에 자주 나온 음식이라 진짜 궁금했거든요. 눈물 찡하게 맵고, 달짝지근한 양념에 부드러운 떡! 지금도 한국 음식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떡볶이예요.”

그 특별한 맛을 잊지 못해 한국 생활 3개월 만에 ‘한국의 미-한국음식’이란 주제로 출전한 외국인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의 영예도 얻었다. 떡볶이 외에도 된장, 청국장 등 한국전통 음식은 가리는 것 없이 잘 먹는다는 타미르 씨. 요즘은 오히려 한국음식은 괜찮은데 가끔 양갈비 등 몽골 음식을 먹을 때면 배탈이 날 정도다.



독도, 아직도 안가 보셨어요?

그렇게 한국 생활에 익숙해질수록 당연하게 한국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졌다는 타미르 씨. 가장 관심이 큰 부분은 통일과 독도문제다. 지난 6월 말에 개최된 ‘2014 유학생 독도사랑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한 이유 역시 자신의 넘치는 끼를 활용해 독도에 대해 알리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독도 가보셨어요? 저는 작년에 유학생들이 독도를 방문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가했거든요. 그 전에도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독도의 역사적 가치나 중요성, 아름다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론적인 것 말고요.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가는 길에 진짜 고생했거든요? 사람들이 배 멀미로 좀비처럼 다 쓰러져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딱 도착해서 독도를 밟는데 그냥 알겠더라고요. ‘아 이건 누가 봐도 한국땅 이구나’라고요. 그래서 주변 한국인 친구들에게 언제나 하는 말이 있어요. 독도 가보라고. 책이나 그림보지 말고 한번만 가보라고. 가보면 알게 된다고요.”





외국인인 자신도 경험한 그 감동을 한국친구들이 알게 되길, 그래서 독도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기를 바란다는 것이 타미르 씨가 독도방문을 권하는 이유란다. 통일문제도 마찬가지다.

“안타깝죠. 남북한이 분단됐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사람들은 좀 무심한 것 같아요. 물론 통일이 된다면 남한이 아무것도 없는 북한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겠지만, 대신 한국은 ‘섬’이 아니라 ‘대륙’이 되잖아요. 몽골까지도 기차로 갈 수 있어요. 통일만 된다면 하나의 가족이 같이 살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생기는 일인데, 어째서 한국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까요?”



‘무지개의 나라’ 한국에서 배운 정(情)

타미르 씨는 통일이 된다면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으로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돕는데 한 역할을 담당하고 싶다고 말한다. 마치 낯설고 외로웠던 자신의 한국생활을 도와줬던 고마운 이들과처럼 말이다.

“식상할 수도 있지만 전 한국의 정이 참 좋아요. 몽골은 유목민족이라 그런 정서가 없거든요. 물론 한국에도 쌀쌀맞고, 차가운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함께 나누고 살아간다는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기숙사 앞에 편의점 아주머니는 저만 보면 김치는 있냐고, 반찬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먹자고 말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한 때는 어린 마음에 한국 사람이 되고 싶었을 만큼 한국을 동경했다는 타미르 씨. 요즘은 졸업 전 학교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외국인 신입생 유치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자신처럼 한국을 동경하지만 쉽사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몽골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그의 주 업무다. 또 얼마 전까지는 한국의 전통 춤을 배워, 교도소, 교회 등을 다니며 공연도 했었다. 내가 받은 고마움을 다시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즐거움 역시 그가 '무지개의 나라' 한국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다.

<글. 권혜리 / 사진. 나병필>



얼마 안 있으면 삼복 더위 중 마지막인 말복(末伏)이 찾아온다. 복날에는 삼계탕과 보신탕을 파는 식당이 문전성시를 이루곤 한다. 요즘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고열량, 고지방 음식을 꺼려하고, 사회문화적 인식이 변화되어 여름보양식의 트렌드가 좀 바뀌긴 했지만 아직도 보신탕을 최고의 보양식으로 치는 이들이 많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도 보신탕을 먹을까? 남북한 음식비교로 좌충우돌 남한적응기를 시작해 본다.

북한 음식 그리웠지만, 북송됐을 때 먹어본 것은...

북한에서도 보신탕을 먹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조선시대 실학자 유득공은 '경도잡지'에서 '개장을 먹고 땀을 내면 더위를 물리치고 허한 기운을 보충할 수 있다'고 썼다. 보신탕은 남과 북이 갈라지기 전부터 우리 민족이 함께 먹었던 음식이었던 것이다. 다만 북한에서는 보신탕을 '단고기' 또는 '개장'이라 부르고, 조리방식과 양념도 남한과 차이가 있긴 하다.

청진에서 꽤 부유한 삶을 살았던 A씨는 남한에서 먹는 보신탕은 북한에서 먹었던 단고기 맛이 아니라며 아쉬워했다.

"남한에서는 육개장이야(육개장이) 그래도 북한 단고기 맛에 가깝더라 말이지."

김책 출신의 아주머니 B씨는 단고기를 '개장'이라고 불렀다. 바닷가가 고향이어서 처음에는 '개장'을 뜻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보신탕을 가리키는 말.

"남한 개장은 북한의 개장하고 달라. 돼지고기 살토매기(살) 같은 맛이 나더라고? 그래서 얼마 전엔 통 거(개 한 마리를 통째로) 사 가지고 손님들 초청해다가 대접했었어."



▲ 육개장



▲ 당면이 들어간 남한의 순대

남북한 부르는 음식 이름은 같은데 재료가 다른 것이 있으니 바로 '순대'다. 탈북한 지 10여년이 지나도 아직 C씨는 남한의 순대를 못 먹는단다.

“북한의 순대는 당면이 안 들어가거든요. 지금도 순대 사러 가면 '내장 많이 주세요'라고 말하고 내장만 먹어요. 순대는 아바이 순대 파는 데 가서 따로 먹고요.”

하지만 된장은 남북한이 비슷해서 갓 남한에 온 사람이라도 된장찌개를 선호하는 편이었다.

“그래도 메주된장 맛은 이 짝(남한)이나 저 짝(북한)이 같더라.” 이처럼, 하물며 벌레가 먹고 보잘 것 없는 배추라도 북한 토양에서 나고 자란 것이 그리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의외로 북한의 옛 맛이 전혀 그리지 않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D씨는 중국에 와서 생활하다 다시 복송되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북한에 있을 때는 배고파서 뭐든지 잘 먹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살다가 다시 북한으로 잡혀가서 먹었던 음식은 맛이 없었어요. 순대도 국수도 북한을 떠나 있을 때는 진짜 북한 거 먹고 싶었는데, 막상 돌아가서 먹어보니 국수도 밥도 모래 씹는 것 같아요. 입맛을 베려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먹었던 그 맛을 다시 느낄수 없었어요.”

“남이가 북이가 풍속은 다 같더라”

북한이탈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의외로 ‘맞아 맞아, 우리 남한도 그래요’ 이렇게 맞장구를 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일상 예절에서 공통점을 많이 느꼈다는 A씨. “서로 갈라져 있는 기간이 오라서(길어서) 그렇지, 조선민족 풍속은 다 같다는 걸 많이 느꼈어. 밥을 왼쪽에 놓고 반찬을 오른쪽에 놓고… 밥을 다른 쪽으로 놓으면 대단히 욕해. 어른보다 먼저 밥숟가락을 들면 이마에 피도 안 마른 아새끼가? 이려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 변화이다. 물론 한국에 온 지 오래된 이들은 북한을 남존여비가 매우 강한 사회로 회상했다. 탈북한 지 7년 정도 된 남성 A씨.

“내 (북한에) 있을 때 꺼지는 남자를 낳아야 좋다고 했어. 며느리들이 아들을 낳게 되면 미역국을 끓여 주고 돼지발족(족발)을 사서 고아주는데, 딸을 낳으면 값이 없었다 말이지. 그런데 2007년 이후에는 잘 모르겠어”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 북한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데는 동의했다. 북한에서는 남자들이 직장을 갖지 않으면 추방당하거나 처벌받는데, 막상 직장에 다녀도 끼니를 잇지 못하기 때문에 대개 여자들이 장마당에서 장사를 한다. 50세 이상의 여성들만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경해냈지만, 50세 미만 여성들도 규찰대 단속을 피해 '메뚜기장'에서 반찬이나 소채(채소)를 팔곤 한다고.

“여자들이 하루 종일 장마당 나가서 먹여 살리니까 집안에서 남자가 가사 다 해야 하거든요. 유머 도는데 (우스갯소리로), 남편을 메주 주무르듯이 주무른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와 양상은 다를지 몰라도, 어찌되었든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늘어난 것만은 남한과 북한이 같은 셈이다.

열성이 말썽? 남한 사람들은 신용이 철저한가 했어요!

그런데 문득, 영화나 드라마에서 처럼 북한에서는 정말 사람들끼리 호칭을 ‘동무’라고 부르는지 궁금했다. “북한 학교에 있을때 간부들에게 지령이 떨어졌어요. 이제부터 각 학급별로 동무라고 불러라. 무슨 무슨 동무라고 부르지 않는 애들은, 그 학급은 처벌준다(처벌한다). 그래서 서로 막 어색한데도 무슨 동무라고 부르기 했어요. 하지만 친구끼리는 아무개야, 이러면서 편안하게 대해요.”



F씨는 그때 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가 많이 그리다고 했다. 하지만 남한에 와서는 아직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못 만났다고.

“겉으로 보기에 다들 상냥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을 고쳐먹어야겠다 하는데도 벽을 쌓게 되고, 뒤돌아서면 내 송(흥)을 보는 것처럼 느껴져 처음에는 열등감이 많았어요.”

남한 주민들도 오해가 있긴 마찬가지. 바로 북한 사람들이 일할 때 그닥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 경쟁사회에서 살아온 남한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A씨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정도 공감이 간다.

“북한에서는 당에서 한 걸음 걸으려면 한 걸음 걸어야지 더 잘하겠다고 두 걸음 나가게 되면 말썽이 될 때가 있어. 열성이 말썽이다... 그러니까 열성을 혼자 피우다가 지나치게 나가면 말썽이 된다는 말이지.”

또 남북한 주민어울림 행사 등에 나와서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자꾸 피하려고만 한다는 오해들도 있다. 알고 보면 사정은 이렇다.

“내가 원래 성격이 알락알락한데(활달한데), 혹시라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친척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는가, 잘못했다가 이 사람들에게 불행이 오지 않을까해서 안 나가는 기지.”

남한사회로 들어오기 전, ‘신용’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받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C씨의 하소연도 들었다. “하나원에서 교육받을 때는 남한 사람들이 약속 어기는 것을 절대 싫어하기 때문에, 흑간 못나올 때나 늦을 때는 꼭 전화해야 한다는 얘길 들었어요. 아! 한국 사람들은 신용이 철저한가 했지요.”

하지만 막상 나와서 취업을 해보니 업주가 당초 계약을 맺은 만큼 월급을 올려주지 않아 실망했다는 C씨. 어느 사회라고 좋은 사람만 있겠나 체념했다면서도 아직 꾸준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최근에 만난 한 탈북 남성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남한의 애국가가 진짜 가슴에 찡~하게 와 닿는 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딱 9년 됐습니다.”

‘대통령’보다는 ‘장군님’이란 말이 아직 더 자연스러운 이들이 남한 주민들을 ‘내 이웃’으로, 한국을 ‘내 조국’으로 마음 속 깊이 받아들이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오랜 세월 살아온 터전을 떠나 ‘무한한 기회의 땅’이자 동시에 ‘무한 경쟁의 땅’이라는 양면성을 지닌 사회에 뛰어들어준 이들에게, 남한 사람들이 먼저 가슴을 열고 이웃이 되어 그들의 삶에 길라잡이가 되어줄 필요가 있겠다.

<글. 기자회견>



“2030젊은 세대는 통일 편익의 수혜자”

민주평통 박찬봉 사무처장, 대학생들과 통일대화 나눠

2030 젊은세대를 일컫는 신조어 중 ‘3포세대’라는 말이 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어려워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다는 뜻인데, 최근에는 스펙 쌓기와 취업전쟁에 치여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고 해서 ‘4포세대’로 불리기도 한다. 여기에 하나를 더하자면 ‘통일 포기’가 아닐까 싶다. 절반 가까운 대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요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박찬봉 사무처장은 7월 8일(화) 처장실에서 ‘통일대박과 통일논의의 새 방향’을 주제로 대학생 7명과 ‘통일대화’를 나눴다.



〈통일대화 참가자〉

- 박찬봉 사무처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안득기 연구위원(국가전략문제연구소)
- 정보라(한국외대 대학원 정외과, 2030 자문위원)
- 송민지(한국외대 인도어과 4학년)
- 정수나(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 이강원(한국외대 노어과 4학년)
- 황현우(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3학년)
- 홍석명(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3학년)
- 이소정(미국 얼바인 주립대 졸업)





박찬봉 사무처장

통일은 우리 민족 전체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특별히 반갑게 맞이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기백을 믿습니다. 통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현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지

주변 친구들에게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더니, '통일은 이뤄져야 하지만 내가 그 세대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통일에 따른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이러한 편견을 바로잡으려면 민주평통이 대학생들과 소통하면서 통일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찬봉 사무처장

좋은 문제를 지적했네요. 그렇다면, 과연 20대인 대학생들이 통일로 인해 부담을 질 세대인지 혜택을 볼 세대인지의 문제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수나

제 생각에는 20대 청년보다 기성세대들이 감내해야 하는 부담이 더 클 것 같아요. 통일이 되면 잠시 혼란기를 겪을 수는 있지만,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20대는 오히려 수혜를 받는 세대가 되지 않을까요?



소정



짐 로저스라는 금융인이 '북한에 모든 재산을 투자하겠다'고 호언한 기사를 봤어요. 자원이거나 발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지요. 큰 그림을 놓고 본다면 통일이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기회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해요.





강원

20대이기 때문에 통일을 편익이나 비용으로만 바라보진 않아요. DMZ 근처에서 군대생활을 했는데 북한과 좋지 않은 일들이 몇 번 있었고, 러시아 유학시절에 북한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을 때 너무 많은 괴리감을 느꼈어요.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휴머니즘적인 차원에서 통일문제를 접근하고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석명



통일과 복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복지는 단순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비용을 대고 더 많은 효과를 내서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사는데 의의를 두잖아요. 사회복지 비용을 분담하는 것에 대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처럼, 통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민주평통 웹진과 같이 20대가 공감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주고 소통한다면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것 같아요.

현우

제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이고 4년 전 한국에 왔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생각이 누구보다 간절해요. 저는 중국으로 반출되는 북한의 지하자원, 즉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통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나요?



박찬봉 사무처장



먼저 왜 통일을 이뤄야 하는지 정리해보고, 어떤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통일의 필요성을 따질 때는 두 가지 기준, 즉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정의(正義)의 기준이 있고 또 하나는 득실(得失)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1,300여 년동안 역사와 문화를 같이해 왔고 원해서 분단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를 회복해서 잘 사는 것이 옳은 모습이에요. 이익의 관점은 '파레트 최적'이라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고 북한 사람들이 잘 살게 된다면 우리 민족 전체의 복지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남북한의 빈부차이는 제도의 차이입니다. 8천만 민족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통일 후 세금부담은 일부일 뿐, 북한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투자에 의해서 이뤄질 것입니다. 이는 동독지역의 발전 양상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다만, 현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 있는데, 국제사회와 연계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려 합니다.



수나

분단 기간이 너무 길고, 이미 남한은 글로벌화되었잖아요. ‘한 민족이었으니까 다시 통일을 해야 돼’가 아니라 한 영토 안에 살면서 윈-윈 하려면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오픈된 마인드를 가져보자는 시각으로, 관계설정을 다시 해서 시간프레임을 두고 접근하는 건 어떨까요?

박찬봉 사무처장

통일은 민족 전체의 생존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요. 중국과 일본은 하나의 민족 국가를 이루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잖아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통일은 필요해요. 평화롭다가도 갑자기 일어나는 게 전쟁입니다. 1900년대 초 세계사만 봐도 세계 만국의 평화를 논하던 중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고 20년도 안돼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유지되려면 한반도가 주변 열강의 전쟁터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과 우리는 남남이 아니라 같은 문화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민족입니다. 하나가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민족 전체를 행복하고 안전하며 자유롭게 하는 통일이 돼야 해요.

보라

통일이 되면 한국의 위상이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데,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통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의문이 들어요. 이에 대한 방안이 있나요?



박찬봉 사무처장

맞아요. 통일문제는 남북간의 문제이면서도 국제적인 문제이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민족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독일의 경우, 동독을 관리하던 소련군을 고르바초프가 철수시키자 동독 주민들이 헝가리를 경유해서 서독으로 대거 넘어 왔는데, 처음에는 헝가리 정부도 이들을 붙잡아 동독으로 되돌려 보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길을 터줬고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지요. 사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독일이 커지는 것 자체가 위협이 되기 때문

에 명시적으로 독일의 통일에 반대를 했어요. 독일과 우린 달라요. 독일은 피해를 준 나라고 우리는 피해를 입기만 한 나라지요.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결국 우리의 힘에 달렸어요. 우리가 통일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민지

2030세대에게는 통일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요. 뉴스 외에 교육을 통해 들은 게 없어요. 2030 세대의 통일교육을 민주평통에서 해주실 수 있나요?

박찬봉 사무처장

저도 젊은 세대, 대학생들의 통일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들 세대를 동참시키는 방법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바로 그 점에 있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학생들이 통일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해요. 국론을 하나로 모아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주위의 학생들을 설득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 기자희 / 사진. 나병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일운동중심체로서 통일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건의 하는것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확산하고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충남 당진시협의회는 6월 22일 당진문예의전당소공연장에서 관내 초중고교생, 학부모, 교사 등 200여 명과 함께 '청소년 평화통일 시낭송 대회'를 열었다.



▼ 부산 지역회의는 6월 20일 부산사직실내체육관에서 부산울산지역 고등학생 784명, 지도교사 및 자문위원, 초청내빈 및 사무처·부산시·부산시교육청 관계자 등과 함께 '2014년 민주평통 통일골든벨 부산울산 지역회의대회'를 열었다.





◀ 경북 구미시협의회는 6월 22일 낙동강 체육공원 족구장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자문위원의 '소통과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를 열었다.



◀ 대구 지역회의는 6월 26일 호텔인터불고 무궁화홀에서 대구지역 자문위원 200여 명과 함께 '제22차 대구평화 통일포럼'을 개최했다.



▲ 인천 서구협의회



▲ 충남 예산군협의회

인천 서구협의회는 6월 12일 신한중학교에서 북한이탈주민강사를 초청해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통일강연회'를 실시했으며 6월 18일에는 충남 예산군협의회가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에서 탈북인사 초청 '청소년 통일교실'을 열었다.



▲ 경북 의성군협의회



▲ 경기 가평군협의회



▲ 경북 청송군협의회

이어 6월 25일에는 경북 의성군협의회와 경기 가평군협의회가 각각 안계초등학교, 상색 초등학교에서 학생, 교사들과 함께 '2014 찾아가는 통일교육'을 열었으며 7월 9일에는 경북 청송군협의회와 경기 구리시협의회가 현서중·고등학교, 토평중학교에서 북한이탈주민 강사를 초청, 통일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7월 10일에는 경기 의정부시 협의회가, 7월 14일에는 인천 계양구 협의회가 학생 및 교사 370여 명과 함께 '북한이탈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 이야기'를 열었다.

경기 의정부시협의회 ▶



인천 계양구협의회 ▶



▲ 경기 구리시협의회



▲ 서울 양천구협의회



▲ 경기 이천시협의회



▲ 대구 수성구협의회

서울 양천구협의회는 6월 28일 멘토-멘티 18명과 함께 '어깨동무하기 3차 모임'을 열었으며, 경기 이천시협의회는 6월 30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멘토-멘티 등이 함께 참석해 '어깨동무하기 멘토-멘티 걸연식'을 개최했다. 한편, 대구 수성구협의회는 7월 8일 뉴욕뉴욕웨딩에서 북한이탈주민, 자문위원, 각 기관단체장 등 150여 명과 함께 '북한이탈 주민합동결혼식'을 열었다.

충북 충주시협의회는 6월 9일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국제회의장에서 자문위원 및 건국대학교 글로벌대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통일시대시민교실'을 개최했으며, 대구 남구협의회는 6월 25일 대구남구청 드림피아홀에서 지역주민 및 자문위원 300여 명과 함께 '2014 통일시대시민교실'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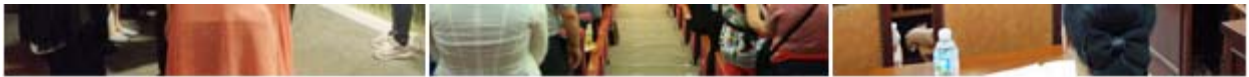


▲ 충북 충주시협의회



▲ 대구 남구협의회





▲ 전남 해남군협의회

▲ 경기 광주시협의회

▲ 제주 지역회의

전남 해남군협의회는 6월 26일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내고장일기 행사'를 개최했으며, 경기 광주시협의회는 6월 27일 광주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각급 기관·단체장 및 임원, 지역주민, 군부대 장병, 자문위원 등 300여 명과 함께 '통일안보 특별강연회'를 열었다. 이와함께 제주 지역회의는 7월 4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제주여성통일리더십 과정 4차 특강을 실시했다.



▲ 경북 봉화군협의회



서울 마포구협의회 ▶

경북 봉화군협의회는 6월 25일 여성자문위원 7명과 봉화군노인복지관 급식소를 찾아 '나눔 봉사활동'을 실천했으며 서울 마포구협의회는 7월 3일 마포구 용강동 김동심용 자택에서 '나리사랑 보금자리' 물품 지원 전달식을 열었다.



▼ 제주 제주시협의회



▲ 전남 광양시협의회

이어 7월 4일에는 전남 광양시협의회가 여성분과 및 청년분과 자문위원이 함께 한 '우리는 한마음, 사랑 함께 나누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제주 제주시협의회는 7월 12일 자문위원 20여명과 함께 예향원을 방문,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 대전 서구협의회



▲ 강원 홍천군협의회

▲ 서울 금천구협의회

대전 서구협의회는 6월 15일 관내 소방대원 35명과 함께 오두산 통일전망대, 제3망골,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등을 견학했으며, 서울 금천구협의회는 6월 26일, 지역주민 및 자문위원 130여 명과 함께 강원도 고성군에서 '2014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통일안보견학'을 개최했다.

▲ 경남 거창군협의회

경남 거창군협의회는 7월 3~4일에는 가조중학교 전교생과 관계자 102여 명이 '청소년 통일공감 분단체험 학습'에 참가했으며 강원 홍천군협의회는 7월 4일 '통일한마음 현장탐방'을 실시했다.



▲ 경북 영주시협의회

이와함께 경북 영주시협의회는 7월 11~12일 영광여고 임원학생 35명, 인솔교사, 자문위원 등 45명과 함께 경북 영주시 청소년 통일기행을 다녀왔다.

북유럽협의회

북유럽협의회는 6월 28일 프랑크푸르트 자일스하임 시립강당에서 청소년 통일골든벨 북유럽 결선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프랑크푸르트 김영훈 총영사, 한영주 부총영사, 한호산 고문 자문위원, 학부모, 동포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대회 결과 고등부에서는 최은지(16세)양이 아시아 중동 유럽대표로 참가했다.



중국 칭다오의회



중국 칭다오협의회는 7월 5일 자문위원, 수상자, 학부모 등과 함께 '통일 글짓기 및 그림 그리기 대회시상식'을 열었다. 총 500여 편이 접수됐으며 고등부 글짓기 부문은 연대한국 학교 이주연 학생이 대상을 수상했고, 그림 그리기 대회 부문은 칭다오청운한국학교 최연지 학생이 민주평통 사무처장상을 수상했다.

베트남협의회





베트남협의회는 여성사회 봉사분과 위원회 주최로 6월 28일 호치민시 평빈군에서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통일강연 및 경로잔치'를 열었다. 강연회에는 차상덕 명예회장과 전종규 협의회장, 정금자 노인회 지회장, 국가유공자, 625참전용사, 고엽제 전우회 회원, 노인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민주평통 제3차 직능별 정책회의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7월 2일(수)~3일(목)까지 1박 2일에 걸쳐 2014년도 제3차 직능별 정책회의를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통일, 행정, 농수산임 3개 직능을 대표하는 전국 자문위원 총 12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직능별 정책회의는 18개 분야 자문위원들이 통일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위원간 상호 생각을 공유하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자리로, 지난 1차 회의(6월 2~3일)에는 총 140여명, 2차(7월 1~2일)에는 100명의 자문위원들이 각각 참여했다. 각 직능별 분임토의에서는 △통일직능 '통일대박담론 공감대 확산 방안', △행정직능 '남북한 주민 동질성 회복 방안', △농수산임직능 '남북한 농수산임 분야 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올해는 자문위원들이 직접 발언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늘려서 편성함으로써, 더욱 내실 있는 회의로 진행됐다.

박찬봉 사무처장 '통일준비과제와 민주평통의 역할' 기초강연

심혜진 자문위원(경기 이천시협의회)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박성배 대전부의장의 환영사와 박찬봉 사무처장의 '통일준비과제와 민주평통의 역할' 기초강연, 유호열 고려대 교수의 '최근 한반도 통일환경 변화와 남북관계' 특강, 각 분임별 정책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찬봉 사무처장은 '통일준비과제와 민주평통의 역할'에 대한 기초강연을 통해 "통일은 한반도의 경제적 발전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반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이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준비위원회의 출범으로 인해 민주평통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민주평통은 통일준비과정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다가오는 통일을 맞이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전체적 연결고리 역할을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 박찬봉 사무처장



▲ 박성배 대전부의장

박성배 대전부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통일과 통일준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자문위원들이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한편, 이 자리를 빌어 자문위원이 서로 소통하며, 경험과 비전을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열 교수 ‘최근 한반도 통일환경 변화와 남북관계’ 강의

이어 유호열 교수의 ‘최근 한반도 통일환경 변화와 남북관계’ 특강이 진행됐다. 유호열 교수는 “최근 한반도 주변 통일환경은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이른바 ‘신냉전’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새로운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외교를 통해 역내 항구적 평화와 협력 시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북한의 내부 정세에 대해 신중적으로 대응해나갈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동시에 펼쳐야 하며, 북핵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공고히 하고, 특히 한중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정세,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파장을 본다면 결코 녹록치 않은 시점에 놓여있기 때문에 민주평통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유호열 고려대 교수



분임별 정책회의는 소주제별 6개 분임으로 나누어, 각 분임별로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가를 배치해 모든 자문위원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분임별 전문위원으로는 통일직능에 우평균, 이정우,

차승주 박사, 행정직능에 이지순 박사, 농수산임직능에 김일한, 이창희 박사 등이 각각 참여했다. 이어 2일 차인 7월 4일에는 분임토의 결과를 토대로 분임별 발표자를 선정, 직능별 정책회의에 참석한 모든 자문위원들이 그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통일, 행정, 농수산임 분야 3차 분임별 정책회의 결과

통일직능 : 통일대박담론 공감대 확산 방안

생활밀착형 통일논의를 활성화하고, 통일대박담론 및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며, 학교 및 사회에서 통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통일대박의 객관적 조건을 성숙화해야 한다.

행정직능 : 남북한 주민 동질성 회복 방안

과거사 문제에 대해 북한과의 상호 협력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 마련해야 한다. 국제대회에서의 남북한 단일팀을 형성하고 남북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며, 북한과의 관광교류를 재개해야 한다.



농수산임직능 : 남북한 농수산임분야 교류 활성화 방안

지자체 간의 농업지원 및 교류를 활성화하며 북한에 대한 농업기술인력을 지원한다. 또한 북한 농업전문가를 남한으로 초청하여 연수를 진행하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남북 공동으로 진행하며,

남북한 어장을 통합해 관리한다. DMZ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자문위원들이 적극적인 통일여론을 주도해야 한다.



직능별 정책회의 이모저모

즉석에서 여론조사, '놀라워요~'

한편, 이날 정책회의를 담당할 여론분석과에서는 즉석에서 스마트폰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를 취합 분석한 다음, 당일날 바로 그 결과를 공개해 흥미를 끌었다. 여론조사 결과 참석 자문위원 120명 중 114명이 설문에 참석했으며, '우리 사회의 통일준비 진행정도'를 묻는 질문에 56%가 '잘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여론분석과 박학민 과장은 "자문위원들의 의견수렴통로를 다양화하고 현안이 발생했을 때 자문위원들에게 즉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에 반영하기 위해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춰 온라인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될"이라고 말했다.



통일4행시 '자문위원 모두가 시인'

자문위원들이 행사 중간에 '통일대박'과 '국민통합'을 주제로 통일 4행시를 응모했다. 10편의 우수작이 뽑혔고 당선자들은 큰소리로 낭독하여 모두의 박수를 받았다. 이 가운데 2편을 소개해본다.

- 통일이지 한데모아 / 일어섰다 대한민국 / 대대손손 통일대박 / 박수치네 전세계가
- 국화는 추로에 향기 더욱 짙어지고 / 민족의 정기는 시련 속에 굳어진다 / 통하는 성품과 마음은 한민족이니 / 합하면 대국도 침략도 대적 못할쏘냐





“뜻깊은 행사가 된 것 같아요”

박희중(경산시협의회 교육홍보분과위원장) = “자문위원들이 다시 한 번 자세를 가다듬어, 통일이 되면 어떤 좋은 변화가 올 것인가 알려줄 수 있는 교량적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책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토의하고 고민해볼 것입니다.”



강영숙(해운대구협의회 여성분과위원장) = “통일을 이루기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까 싶어 왔는데 막상 와보니 모두 열성적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것을 봤습니다. 빨리 통일이 돼서 기차를 타고 세계를 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강광민(광주 광산구협의회 간사) = “통일에 대해, 그리고 민주평통이 통일준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해서 교환하고 소통을 이루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지순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분임토의 전문가) = 민주평통 자문위원님께서 창의적인 의견을 많이 말씀해주셨고, 실제로 통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법제화되고 제도화될 때 상당히 좋은 밑거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지순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

“통일도 꼭 필요하고 안보도 중요하단 걸 알게 됐어요” 민주평통 통일골든벨 해외·탈북 학생 유적지 견학



“독일에서 북한은 세계 최대의 테러리스트로 알려져 있어요... 오늘 땅굴에 와보니 ‘이렇게 가까이부터 이미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도라산전망대에서 북한을 직접 바라보니 통일이 멀게 느껴지지 않고 확실히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아요.(최은지/독일 프랑크푸르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고등학교 통일골든벨 결선대회(KBS 역사-통일골든벨)를 이틀 앞둔 7월 18일(금) ‘2014 민주평통 통일골든벨 해외·탈북 학생 유적지 견학’을 실시했다. 유적지 견학에는 해외 고등학생 10명과 탈북 학생 2명(한겨레중고등학교)이 참가했으며, 국립중앙박물관과 경복궁 등 역사유적지와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DMZ 서부전선 파주지역) 등 안보유적지를 다녀왔다. 민주평통은 올해 처음으로 해외지역 회의 예선을 통해 외국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KBS역사통일골든벨 참가 기회를 부여했다.



▲ 출발 전 박찬봉 사무처장은 학생들을 만나 “통일을 이뤄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같이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우리 유물과 역사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학생들은 전문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선사고대관과 중·근세관, 1층 로비의 경천사 10층석탑, 기증관, 불교조각실 등을 관람했다. 특히 학생들은 고려시대 충목왕 때 지어졌다가 일본으로 밀반출된 뒤 되찾은 경천사 10층석탑과 올림픽 마라톤 선수기 경 선수가 기증한 '고대 그리스 청동 투구'에 대한 설명을 인상 깊게 들었다. 독일 최은지 학생은 "역사 유물을 직접 보고 신기해서 소름이 돋았다"며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와서 자세히 보고 싶다"고 말했다.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제작된 대형 석불과 철불, 금동반가사유상을 만나볼 수 있었던 불교조각실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쏟아졌다.



경복궁, 사진으로만 봐왔는데 실제 와보니 할 말을 잃었어요

이어 학생들은 경복궁으로 자리를 이동해 근정전과 수정전, 경회루, 사정전, 천추전 등을 둘러봤다. 궁궐의 조하를 거행하고 외국사신을 맞이하는 등 국가의 중요한 의식이 거행됐던 근정전 앞에서 전문해설사는 당시 왕의 생활상을 상세히 설명해주었다. 단청 오방색이나 근정전 품계석, 궁궐 바닥에 깔린 돌까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유물들에 담긴 의미를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세종대왕 때 집현전이 있던 자리에 다시 지어진 수정전을 거쳐, 외국사신의 접대나 연회장으로 사용되었던 경회루 등을 둘러봤으며, 치마바위 전설을 듣는 등 각기 장소에 얽힌 옛 이야기에 귀를 쫓긋 세웠다.



한편, 이날 이훈복 중국부의장은 경복궁까지 학생들의 인솔을 도왔다. 이번 결선대회 5명의 중국학생들이 참가했는데, 이를 위해 중국 5개 지역협의회에서는 총 500명을 선발해 예선을 치렀다. “예선 참가학생 선발 때도 약 1,200여 명이 참가했어요. 중국 대륙이 워낙 넓다보니 이동하는 데만 하루 종일 걸리기도 하고 소요경비를 분담한 중국지역 자문위원들의 부담도 크긴 했지만 학교나 학부모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고 중국 언론들도 취재를 오는 등 큰 이슈가 됐습니다. 다른 그 어떤 통일 활동보다 더 큰 파급효과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도라산전망대, ‘통일’이란 말이 가깝게 느껴져요

안보견학지였던 도라산전망대와 제3땅굴은 해외지역 학생들이 대부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어서 더욱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눈앞에 개성공단이 훤히 보이는 도라산전망대에서 학생들은 북한을 가깝게 느끼며 통일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고, 제3땅굴에서는 북한이 너무 가까운 곳까지 남한을 위협해 들어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안보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었다.



도라산전망대에서는 DMZ 지역의 모형을 가까이에서 보며 군장병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창문 밖으로는 개성공단과 인공기, 북한의 아파트 등이 보였고 야외에 설치된 망원경을 통해 장단역과 북한선전마을인 기정동 등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베트남에서 온 이용성 학생은 “도라산전망대에서 북한을 봤는데 ‘북한’하면 막연히 안 좋게만 생각했지만 알면 알수록 통일을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제3땅굴, 안보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제3땅굴 입구. 학생들은 땅굴을 발견하게 된 계기, 땅굴 내부 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도 처음에는 ‘땅굴 시원하겠다’, ‘추울걸요?’ 등의 농담을 나누곤 했다. 하지만 막상 다녀오고 난 뒤에는 상기된 표정으로 ‘안보’라는 말을 유독 강조했다.



“땅굴에 내려가 보니 안보의 필요성을 깨닫게 됐다”는 강승희 학생(브라질 상파울루)은 브라질 친구들이 남 북한의 차이점도 잘 모르고 왜 나뉘어서 사느냐고 묻곤 했는데, 이젠 더 잘 설명해줄 수 있을 것 같다며 웃었다. 오혜빈 학생(미국 휴스턴)은 “땅굴에서 본 광경은 마치 영화에나 있을 법한 장면들 같았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헤빈이는 “통일이 되면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을 더 크게 보았으면 좋겠다”며, “통일을 이뤄서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빛내고 싶다”고 말했다.



국내지역회의의 대미 장식한 제16기 경기지역회의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통일열기, 온 국민 통일 공감 이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제16기 국내지역회의가 경기지역회의를 마지막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국내 자문위원 16,662명을 대상으로 약 2주간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지역별로 진행된 제16기 국내지역회의는 통일대박,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드레스덴 구상 등으로 고무된 통일열기를 고스란히 반영하며 뜨거운 열기 속에서 치러졌다. 현장에서 만난 자문위원들은 모두 통일의 당위성에 공감하며, 가까이 다가온 통일을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지원을 위한 '통일맛이 하나-다섯운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통일은 선택이 아닌 역사적 과제”

민주평통은 7월 7일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문화의전당 행복현대극장에서 제16기 경기지역회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박찬봉 사무처장, 박해진 민주평통 경기부위원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정 도교육감, 염태영 수원시장, 김남식 통일부 차관, 등 내·외빈과 31개 경기지역 자문위원들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의 사회는 강려원 KBS경인방송 아나운서가 맡았으며, 북한예술공연팀 '백두한라예술단'의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식순에 따라 개회선언, 국민의례 등이 진행됐다. 조승자 자문위원과 이상호 자문위원이 자문위원 실천강령을 낭독했으며, 이어 민주평통 의장인 박근혜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가 상영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지속적인 통일 활동을 당부했다.



▲ 박찬봉 사무처장

▼ 박해진 경기부의장



박찬봉 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민주평통은 통일을 대비해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안전하고 자유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가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 스스로가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일깨우고 자신의 자리에서 내실 있는 통일준비 활동을 펼쳐 나가줄 것”을 거듭 부탁했다.

이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축사에서 “통일은 선택이 아닌 역사적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남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자 국가안보의 최일선이 바로 경기도”라며 “경기도는 북한지역 산림회복을 위한 병충해 방제 약품 전달 등 4년 만에 대북지원을 재개하고, 남북경제남 북경제·교류 협력단지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 통일시대를 대비한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일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비전이며, 통일문제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소중한 정책건의는 통일 한국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



▲ 김남식 통일부차관

이어 김남식 통일부차관의 ‘통일정책 추진현황 보고’가 진행됐다. 김 차관은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를 본격화하는 정부의 노력과 이에 따른 북한의 동향, 드레스덴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의 후속조치, 북한이탈주민 정착사업, 통일교육 등 주요 정책 현황과 추진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신은숙 위원활동 지원국장은 ‘2014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통해 제16기 국내 해외지역회의, 정책건의 성과제고, 국민 통일역량 결집, 국민 대통합 및 탈북민 지원, 통일미래세대 육성, 국제사회 협력기반 강화 사업 등에 대해 소개했다.



자문위원 정책건의 및 지역협의회 우수활동사례 발표

업무 현황보고 후에는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동영상 '내가 생각하는 통일 대한민국'이 상영됐으며,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자문위원 정책건의 발표가 이어졌다.



▲ 박종선 광주시협의회회장

▼ 류인호 하남시협의회회장



▲ 장영한 과천시협의회회장

박종선 광주시협의회회장은 '한반도 평화통일기반 구축 협의회 구성'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평화통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해 ▲ 국가, 지방단위 기관, 각급단체 간 공조체계유지를 위한 업무협약체결 ▲ 6자회담국이 참여하는 DMZ세계평화공원조성 ▲ 통일정책 이해를 위한 강좌 개설 의무화(학교, 시설) 등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류인호 하남시협의회회장은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을 위해 ▲ 농업축산산림을 동시에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 조성사업 ▲ 대북인프라 건설투자 및 북한 지하자원 개발 등을 건의했다.

장영한 과천시협의회회장은 '드레스덴 구상 실현을 위한 남북주민간의 화합(동질성 회복) 방안'으로 ▲ 범국민적 북한이탈주민 배려운동 ▲ 대중국 민간외교 병행 전개 ▲ 통일대박 인식 확산 ▲ 통일교육을 통한 통일꿈나무 육성 ▲ 새로운 방식의 통일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을 제안했다.



이어 지역협회의회의 '통일맞이 하나다섯운동' 활동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김기명 부천시협의회장은 지역에서 진행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과 체육대회, 둘레길 걷기 활동 등을 소개했으며, 특히 어깨동무 멘토링 사업과 법률자문단 구성, 의료봉사활동 지원, 청소년 장학 사업은 물론 북한이탈주민 취업 알선 및 현장체험 강화 등을 향후 계획으로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조진남 김포시협의회장은 북한접경지역인 김포시에서 진행 중인 연탄나누기 등 대북지원사업과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한 고교생 1일 통일교실, 통일기원 청소년 향토·안보순례 등 북한이탈청소년 지원 사업 등을 발표했다.



▲ 박만준 자문위원

우수사례 발표 후에는 특별안건 '통일준비 실천을 위한 결의문' 낭독이 있었다. 이날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과 등질성 회복 등을 담고 있는 '드레스덴 구상'이 하루 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국내외 통일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평화통일의 대명제 아래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일에 적극 동참할 것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인 '통일맞이 하나·다섯운동'을 펼쳐나갈 것, 끝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이 역사적 소명임을 자각하고, 이를 위해 국내외 통일역량을 결집하는 길에 앞장설 것을 힘차게 다짐했다.

마지막 순서로 박해진 경기부의장이 자문위원들의 힘찬 박수소리와 함께 전원 동의 아래 정책건의안 및 특별 안건을 채택했다. 이어 2014년도 경기지역회의는 박은정 광명시 자문위원의 선창과 함께 회의에 참석한 전체 자문위원들이 통일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담아 합창한 '우리의 소원'으로 마무리됐다.





오늘 행사 이렇게 봤어요! (자문위원 참여소감)

안민교 협의회장(동두천시협의회) = 오늘 지역회의는 협의회장으로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할지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각 지역 단체에서 한 목소리로 통일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통일이 이제 정말 꽃을 피울 때가 됐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박윤영 간사(용인시협의회) = 국민모두가 통일에 대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자문위원들 역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평통의 2만여 자문위원들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하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맞는 올바른 통일 개념과 통일 역사관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순자 자문위원(양주시협의회) =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북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통일을 이뤄, 세계 속에서 통일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저 역시 자문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됐습니다.



정세환 자문위원(안산시협의회) = 오늘 회의에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통일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매우 인상적이었고, 통일을 위해서는 준비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30 청년자문위원으로서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주변 친구들에게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알리도록 노력하는 한편 개인적으로 경제분과에 관심이 있는데 통일과정은 물론 통일 후 남북한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한 몫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학업에도 충실할 생각입니다.

조은경 행정실장(수원시협의회) = 행사를 준비하면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더운 날씨 속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문위원님들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 더 다양한 통일정책 등이 나온다면 통일이 생각한 것 보다 더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북한 주민 모두를 위한 '2014 평화통일 어울림 한마당' 열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 자문위원들과 북한이탈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진 '2014 평화통일 어울림 한마당'이 지난 7월 19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KBS 88 스포츠월드 제 2체육관(강서구 화곡동 소재)에서 열렸다.

민주평통 서울지역회의의 주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당초 자문위원, 멘토-멘티, 탈북민,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이탈주민 268명 등 총 638명의 남북한 주민이 참석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참여열기를 보여주었다. 이날 내빈으로는 박찬봉 사무처장과 이종근 서울부의장을 비롯해 각 구 지역협의 회장 등이 모두 참석했으며, 서울지역회의 임경하 간사의 사회로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평화통일 어울림 한마당'은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족단위로 많이 참석해 남북한 주민간 구분 없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이 되었다. 대회 종목도 피구나 족구, 줄다리기, 달리기 등으로 구성돼 북한이탈주민들이 쉽게 참가할 수 있었으며, 북한 노래, 춤 공연과 함께 행사장 한 켠에서는 북한 음식을 맛보고 직접 만들어볼 수 있도록 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잠시나마 향수를 달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통준위 출범 등 통일준비가 활발한 가운데 개최된 뜻 깊은 행사”



박찬봉 사무처장은 축사에서 "지난 7월 15일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이 개최되어 더욱 뜻 깊은 것 같다"며 "오늘의 어울림 한마당이 북한이탈주민과의 소중한 만남이 되고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근 서울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어울림 한마당은 북한이탈주민과 자문위원 간에 화합과 소통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라며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일에 대한 희망이 더욱 커지고 통일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체육대회에 앞서 청승화, 김설향 자문위원의 선수대표 선서가 있었으며 전문 치어리더와 함께하는 몸풀이 체조가 진행됐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참석 전원이 무대 앞으로 나와 팜팜 치어리더가 알려준 울동에 맞춰 재미있는 동작의 체조를 따라했다.



이번 행사는 크게 열림마당과 화합마당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열림마당에서는 피구와 족구, 통일올림픽, 줄다리기, 계주 등 다 같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로 진행됐으며 화합마당에서는 여성 타악퍼포먼스 그룹 '환타락'과 팜팜 치어리더 K-POP댄스공연, 초대가수 강수빈 공연, 백두한라 예술단 공연, 전자현악 밀키웨이 공연 등이 진행됐다. 행사 중간중간에는 행운권 추첨과 경품증정 등으로 흥미를 돌렸으며, 마지막 시상식에서는 각 협의회장과 개인자문위원들이 이날 행사를 위해 제공한 다양한 경품들을 증정했다.





남한-북한 공연, 전통-현대공연으로 어우러진 '화합한마당'

화합한마당은 남북한 문화, 전통과 현대 문화가 어우러진 화합의 공연으로 진행됐다. 화려한 무대 퍼포먼스와 레이저 불빛, 현란한 조명 등이 분위기를 달궜다.

화합한마당은 여성 타악퍼포먼스 그룹 '환타 락'의 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재능기부'로 공연에 참가한 5인조 아마추어 타악예술단 '환타 락'은 우리의 전통가락으로 구성된 대고와 모듬북 공연, 사물놀이, 퓨전가락인 뮤직난타 등 다양한 연주곡을 선사했다.

참가자들이 공연을 즐기는 동안 뒤편에서는 서울지역 청년위원장들이 점심배식 쓰레기를 솔선수범하여 치우는 모습이 보였다. 파란색 단채티를 맞춰 입은 청년위원장들은 쓰레기 수거 외에도 오홍석 서울지역회의 청년위원장의 지휘 아래 행사장 곳곳을 다니며 원활한 행사진행을 도왔다.



이어 팜팜 치어리더팀이 K-POP댄스공연을 선보였고 북한이탈주민인들의 장기자랑, 초대가수 강수빈, 백두한라 예술단의 공연, 여성2인조 전자바이올린 그룹 전자현악 밀키웨이의 공연 등이 차례로 진행됐다.



끝으로 올림픽한마당 시상식과 행운권 추첨이 있었다. 우승은 통일팀에게, 준우승은 평화팀에게 돌아갔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하면서 2014 평화통일 어울림 한마당의 막이 내렸다.



어는 여름날, 연꽃사이 옛 백제의 길을 걷다 충남 부여



덕유산 자락에서 시작된 고운 강물이 굽이굽이 흘러, 찬란하게 피어났던 역사의 땅에 닿아 '백마'(白馬)라 이름을 바꾼다. 반달모양으로 한껏 허리를 휘 강물이 사연 많은 이 땅을 적시는 동안 저 멀리 덤덤한 얼굴의 부소산이 그 옆을 지킨다. 1,500년 전 풍요롭고 아름다웠다던 '새벽의 땅'은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처럼 긴 세월, 흐릿하게 그 흔적을 지웠다. 그리고 매년 이맘때, 이제는 잊혀져가고 있는 그 땅에 아름답기에 서글픈 연꽃이 피어난다. 이 여름, 충남 부여 아니 옛 백제의 추억을 걸었다.

1

잊혀진 기억을 뿌리 삼아 피어난 연꽃의 향연, '궁남지'

깊고, 길지 않다 한들 어둡지 않은 밤이 있으랴. 그리고 제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언젠고 날은 밝아 온다. 그러니, 어리고 연한 꽃잎들이 한껏 옹그린 채 밤을 지새우는 까닭 역시 더 곱게, 만개(滿開)하기 위함이라고 해두자.

어스름한 새벽 하늘아래 켜켜이 꽃잎을 포개 모양 새가 펍 조신해 보여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어디선가 요란한 소리가 들린다. 투두둑, 툅. 툅. 툅. 참한 생김새와 달리 한바탕 팝콘이라도 튀기듯 요란하게도 꽃망울을 터트린다. 오죽하면 그 소



리에 놀란 아침이 저 멀리서부터 잔 걸음으로 쫓아올까. 그래서 유독 이곳 궁남지의 아침은 이리다.

'마를 캐며 생활하던 소년이 신라의 공주를 신부로 맞이했다'는 내용의 설화 서동요. 그 옛 이야기의 주인공인 백제 30대 왕, 무왕은 아들 의자왕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전 마지막으로 궁궐의 동쪽에 연못을 만들었다. 바로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못, 궁남지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선화공주를 위해 만들었다는 로맨틱한 이야기의 사실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내심 수궁하게 될 만큼 궁남지의 풍경은 더 없이 아름답다.



건드리면 그대로 물이 들 것 같은 쾌청한 하늘 아래 둥그런 모양의 거대한 연못이 있다. 그리고 그 연못 한 가운데에는 임금이 쉬어갔다는 아담한 정자가 자리한다. 정자로 향하는 나무다리 아래로는 한가로이 물고기 떼가 노닐고, 연못 주변으로는 한껏 늘어진 수양버들이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에 제 몸을 못 이긴 채 휘청인다. 어떤 미사여구를 보태지 않아도 보는 그대로 여름의 절경이다.



그리고 그 여름이 절정에 이를 즈음, 연못 주변 10만 여 평의 평지에 연꽃이 핀다. 백련, 홍련, 황금련을 비롯해 수련과 가시연, 왜개연 그리고 물양귀비 등의 수생식물과 색색의 야생화들. 손대기 미안할 정도로 단아한 자태의 연꽃 너머로는 해사한 얼굴의 해바라기가 목을 길게 빼고 객을 맞이한다. 이외에도 연꽃단지 너머 화지산 아랫자락에 다다르면, 황산벌전투에서 전사한 계백장군과 백제 오천결사대의 기백이 살아있는 오천결사대 충혼탑도 만날 수 있다.

연꽃 2

진흙에 뿌리 묻고
내민 얼굴 곱구나

풍량을 다스리며
청정으로 여민 숭결



세상사
어지러워도
자비롭게
우느니.



2 붉은 꽃물, 황포돛대에 물들다, '구드레 나루터'와 '낙화암'

해외문물 교류와 개척, 소통에 관심이 많았던 옛 백제인들에게 백마강은 해양강국이라는 원대한 포부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발판이었다. 그래서 옛 백제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역시 백마강이다. 그리고 그 백마강 굽이굽이에는 물자와 소식을 실어 나르던 나루터가 즐비했다. 그 중에서 구드레 나루터는 백제 사비성(부여)의 해상관문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 선착장에서 출발하는 황포돛대에 오르면 삼천 명의 어여쁜 생명들이 떨어져 내렸다는 부소산성 내 낙화암까지 조금 수월하게 갈 수 있다. 나당연합군이 침입하던 날,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목숨을 내던진 삼천궁녀의 이야기가 과장됐다 하더라도 자존심 드높던 백제인들이 죽음으로 백제의 넋을 지키고자 애썼던 것은 사실. 그래서 그네들의 목숨을 가여워한 한 시인은 이곳을 낙화암이라 불렀다. 꽃잎이 떨어진 곳이란 의미에서다.



강바람이 불자, 때 이르게 피어난 코스모스가 한들거리다 꽃잎을 떨군다. 그리고 그 중의 얼마는 저 멀리 강물을 가르며 다가오는 황포돛대를 향해 날아간다. 어쩌면 언젠가 꽃비가 떨어지던 날에도 이리 붉게 돛을 물들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3 눈부시도록 찬란하고 눈물겹게 서글픈, '6.25 베트남 참전탑'과 '백제문화단지'



4번 국도를 따라 공주에서 부여 방향으로 향하다 보면 부여의 관문을 상징하는 사비문이 보인다. 그리고 그 사비문 한쪽 자그마한 공원에는 죽어서도 이 땅을 지키고 있는 순국선열들의 넋이 잠들어 있다. 조국의 평화와 인류의 자유 수호를 위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순국선열들의 이름, 석자가 가득 새겨진 '6.25 베트남 참전탑'은 화려하지도 웅장하지도 않다. 하지만 마치 이 땅을 지키다 사라져간 그 분들의 마음처럼 단단한 모습으로 오늘도 옛 백제 땅의 입구를 지키고 있다. 자신들의 이름을 잇는다, 닦아주기보다 그렇게 지켜 낸 이 땅의 평화에 기뻐할 분들이기에, 눈부시게 찬란한 이 여름 날이 눈물겹다.



들이켜보면 역사란 언제나 서글프다. 화려했던 영광도, 치열했던 다툼도, 위대한 업적도. 이제는 지나가 버린 과거이기 때문이다. 백제는 우리 역사 속에서도 온전히 흔적을 찾기 어려운 이름이다. 그래서 백제의 후손들은 언제나 옛 선조들의 영광과 흔적을 찾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부여시 외곽에 위치한 백제문화단지에 들르면 사비궁을 시작으로 왕실사찰 능사, 백제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생활문화마을과 고분 등 웅장했던 백제의 옛 모습을 살짝 엿볼 수 있다. 특히 드넓은 대지 위 바닥의 들 한 장에도 연꽃을 새겨 넣었던 백제문화의 우아한 아름다움과 앞선 기술력은 절로 감탄을 자아낸다.

4 밥상 가득 향기 그윽한 연밥 정식

연꽃은 그 아름다운 자태만큼 쓰임새도 많은 약재이기도 하다. 특히 연잎은 성인병 예방은 물론 갈증과 몸 안 습기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 예로부터 여름이면 차로 다려 마시거나 연잎밥을 자주 해먹었다. 연꽃이 만개한 궁남지 인근 역시 연잎밥으로 이름난 식당이 여럿 있다. 발길 닿는 대로 식당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는 연잎밥을 주문하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연잎 밥이 밥상에 오른다.



보기 좋은 모양새에 작은 감탄사를 내뱉으며 아직 뜨거운 연잎을 조심스럽게 풀어 헤치자 견과류를 넣고 지은 찰밥이 윤기 좌르르 흐르는 자태로 입맛을 돋운다. 제철 채소로 정성스레 만든 삼삼한 밀반찬과 함께 천천히 밥알을 씹으면 쫄득한 식감과 함께 입안 가득 은은한 연꽃 향과 단맛이 퍼진다. 여기에, 자작하게 끓여 낸 된장찌개 한 수저를 더 하면 집 나간 여름 입맛이 뉘집 애기인가 싶어진다.

<글. 권혜리 / 사진. 나병필>



콩나물을 주재료로 파, 홍고추, 마늘 등을 섞어 주고 고춧가루를 탄 소금물을 부어 만든 콩나물 김치는 함경도 지방에서 주로 담가 먹는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다. 빛깔이 곱고 맛이 담백해 사시사철 담가 먹지만 특히 무더운 여름철 콩나물 김치에 얼음을 동동 띄우고 소면을 말아 먹으면 상큼한 채소와 아삭한 콩나물, 부드러운 소면이 서로 어우러져 시원하고 담백하게 콩나물 김치 요리를 즐길 수 있다.

요리재료

콩나물 300g, 풋고추 2개, 홍고추 2개, 마늘 30g, 대파 1개, 멸치 젓국 100mL, 소금 약간, 고춧가루 약간, 물 적당량

요리방법



1 콩나물은 머리와 고리를 다듬어 손질한 후 끓는 물에 3분간 삶아 찬물에 헹궈 낸다.



2 풋고추와 홍고추는 어슷썰기를 하고, 대파와 마늘은 채 썰어 놓는다.



3 물에 고춧가루와 소금을 넣고 육수를 만들어 붓는다.



4 삶은 콩나물에 고춧가루, 멸치 젓국, 소금을 넣어 먼저 버무린 후 홍고추, 풋고추, 대파, 마늘을 넣고 버무린다.



5 용기에 담아 하루 정도 냉장보관 후 꺼내 먹는다.



요리연구가 나유신

콩나물의 놀라운 효능

콩나물은 피로 회복 및 숙취 제거에 좋은 아스파라긴산과 섬유소가 풍부해 해장국의 단골 재료로 사용된다. 풍부한 양의 섬유소와 저열량 효소군은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숙변 축적을 막아주며, 미네랄 성분이 피부를 좋게 하고 간 기능을 높여 준다. 조선 시대에는 콩나물이 청심환의 중요한 재료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중국에 수출할 정도로 귀한 약재였다고 한다. 또한 동의보감에는 온몸이 무겁고 저리거나 근육과 뼈가 아플 때 좋으며, 염증을 억제하고 수분 대사를 촉진할 뿐 아니라 위의 울열을 제거하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기록되어 있다.





통일이란 말만 들어도 저는 가슴이 벅차고 설레 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하루 한시도 잊은 적 없고 항상 보고 싶은, 사랑하는 부모처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통일이 되면 나는 부모처자 앞에 매우 부끄러운 모습으로 죄인이 되어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저는 부모처자를 다 버리고 도망친 불효막심하고 배은망덕한 인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그 어떤 말로 변명을 한다 해도 결코 그들의 지탄의 목소리를 막을 수 없으며 또 용서를 받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토록 자나 깨나 바라고 바라던 통일인데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통일된 그날 부모 처자 앞에 떳떳이 나서서 내가 선택한 길이 옳은 길이었으며 이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는 바로 내가 이 땅에 제대로 정착하여 성공함으로써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그들의 본보기가 되고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 되며, 또 그들을 가난에서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나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로 열심히 배웠습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발전된 한국사회에서 적응할 수 없기에 머리가 터지도록 학원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지금은 사이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복지관에 취직되어 일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면서 더 깊이 배우고 연구하고 있으며 통일된 그날 북한의 주민들도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들려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글쓰기를 게을리 하지 않아 자신을 수양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더 많은 저축을 하기 위해 월급의 80% 이상을 저축하면서 생활을 최소한 검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살아남기 위해 총포성이 없는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는 북한에서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며 살고 있을 부모처자를 항상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 허리띠를 조인다는 입장으로 푼돈도 아껴가며 생활 한답니다.

이렇게 저축한 돈으로 통일의 그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으며 살아온 부모처자를 모시고 아울러 복지 시설을 건설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립니다.

★ 이렇게 한다면 부모처자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당당한 모습으로 통일을 맞이하고 또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막대한 분단 비용을 지출해왔다. 또한 대륙과 초원을 향한 직선통로가 차단돼 생기는 불필요한 물류비용과 안보 불안, 북핵 문제 등을 통해 초래되는 비용 역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통일이 되면 이러한 분단 비용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통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막대하다. 2.2배 확장된 국토와 인구뿐만 아니라 휴전이라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벗어나 국가 신용도 상승을 통해 주가와 기업의 자산 가치도 올라갈 것이다. 또한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한국 종단 철도 연결로 물류비 감소는 물론 통일 한국이 반도체의 특성을 살려서 협력 허브가 되는 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행위와 잠재적 전쟁 가능성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은 외국의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가절하 되어 왔다. 통일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기업은 외국의 막대한 자금을 유치할 수 있고 실업문제도 해소될 것이다.



우리는 현재 북한의 낙후된 국토를 개발하고 '평양의 기적'을 이루어 낼 준비가 되어있다. 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 생산력 증가를 통해서 국력이 향상 될 것이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아파트, 도로 등 건설 및 여러 가지로 개발에 필요한 물건들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주변국가에도 통일은 이익이 될 것이다. 금강산 및 옛 고구려 유적지 관광으로 해외관광객들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볼 수 있기 때문에 관광수입 또한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 당분간은 엄청난 경제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과 남한의 시설이나 환경, 시민의 경제의식 등과 같은 차이로 인해 북한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남한 사람들은 막대한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게다가 남북한의 이념, 법, 제도의 차이 등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잘만 극복하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박인

통일을 맞이하기 위해 나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교로서 아이들에게 교과 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후 겪게 될 남북한의 실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어야겠다. 현재 아이들은 통일에 대해 그다지 관심도 없으며 그 필요성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21세기의 푸른 꿈나무인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올바른 통일관과 투철한 국가관을 심어주는 것은 현장 교사의 몫이기 때문이다.

둘째, 남북한 언어와 생활 방식에 대해 먼저 충분히 공부한 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겠다. 통일이 되면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 되는 것이 언어인데 오랜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의 언어가 많이 다르고 그것 때문에 같은 민족이지만 이질감마저 느낄 때가 있다. 따라서 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갖기 위해 가장 필요한 남북한의 언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어야겠다.



셋째, 통일 교육원이나 기타 통일관련 기관에서 통일 교육에 대한 연수를 많이 받아야겠다. 교사인 나부터 통일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아이들에게도 잘 가르쳐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선작③

옛이야기 동화구연가, 전래놀이 지도사로 역량 기르며 통일대박을 준비해요

글. 김미숙

“나에게 통일이란 열쇠와 자물쇠입니다.”

왜냐하면, 공공 잠긴 문을 열려면 열쇠와 자물쇠가 꼭 맞아야 열리듯 남한과 북한이라는 꼭 맞는 짝을 만나야만 통일대한민국 통일대박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통일대박의 꿈을 이루었을 때, 남과 북이 분단 60여 년을 훌쩍 넘기는 **기나긴 세월동안 서로 달라진 생활환경과 문화의 차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남과 북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조상의 옛 문화유산인 옛이야기를 들려주고 전래놀이를 함께하며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우리 전통문화를 통한 남북아이들의 공감대 형성은 반만년 우리 한민족의 위대한 역사적 우수성의 명맥을 유지해 나감으로써 통일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가는 초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남북아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옛이야기를 듣고, 우리 전통 전래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 날이 다가오기를 기대하며 동화구연가로, 전래놀이 지도사로 역량을 기르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남과 북의 문화적 차이는 더 벌어져 가게 됩니다. 하루 속히 통일대박의 꿈을 이루어 남쪽의 문화와 북쪽의 문화를 융합시켜 더 빛나는 문화로 승화 시켰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 당선작은 분량 상 임의로 축소, 수정된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한사회 적응

북한에서 온 친구,

이웃들에게 남한사회 적응 팁을 알려주세요!

주위를 보면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들려줄 남한사회 적응 Tip을
설명해주세요!

혹은 통일이 된 이후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사 올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요!

※ 다양한 입장에서 적응 방법을 제안해주세요.



※ 웹진 「희망을 꿈꾸다」의 「좌충우돌 남한적응기」를
참조하면 쉬워요~ ➡

응모기간 2014년 8월 2일 ~ 24일

응모방법 A4용지 0.5~ 1장 분량으로 자유롭게 서술 후 파일첨부로 응모

당첨자수 3명 **시상내역** 문화상품권 3만 원

〈주의사항〉

- 심사는 내부 기준에 의해 진행됩니다.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해 상품 미수령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통일의 별을 찾아라!

웹진 기사 곳곳에 총 3개의 <통일의 별>이 숨어있어요~
통일의 별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찾았다'는 문구가 뜹니다.
어디에 숨어있는지 별의 위치를 찾으셨다면, 아래 비밀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제 별을 찾아러 GO GO!!

응모기간 22014. 08. 02 ~ 2014. 08. 24

- 응모방법**
1. 기사를 읽고 별을 찾아 별에 마우스를 올리면 '찾았다'라는 문구가 뜹니다.
 2. 총 3개의 별을 찾은 후, 별을 클릭하면 다시 이벤트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3. 아래에 비밀댓글로 별의 위치를 작성해주세요.

당첨자수 30명 **시상내역** 스타벅스 카페라떼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해 상품 미수령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